

집중 신청기간

2024.3.4.(월) ~ 3.22.(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포털(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129 1544-9654 1599-2000

보건복지 상담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행복한 교육

2024 봄 vol.498



공감 정책 story

2024년 교육부 10대 중심과제

배움 현장 story

구미왕산초 오케스트라

채움&비움 story

‘제2의 제주도’를 꿈꾸는 자은도

나눔&소통 story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Story

2024 봄 vol.498

공감 정책 story

02



56

채움&비움 story



배움 현장 story

40



COVER STORY

지난 1년간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해온 대전호수초등학교(교장 김옥세)는 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어오고 있다. 학교 돌봄교실에서 미술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작품과 함께 활짝 웃고 있다.



나눔&소통 story

70



행복한 교육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3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박성민
기획총괄 디지털소통팀장 차영아
교육연구사 하세중, 주무관 오난희
편집장 이순이
기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서지영, 이경화
사진 김경수, 이대원, 박성수
디자인 신혜선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5층 (주)전우용사촌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naver.com
전화 02-2271-0992

Contents

공감 정책 story

02	특집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22	교육웹툰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나보세요!”
24	정책 리포트 ①	2024년 교육부 10대 중점과제
28	정책 리포트 ②	2024년,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폭 확대한다
32	교육혁신24	경남 통학안전 책임지는, 안전아이로
35	몰아보는 교육뉴스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 외
36	초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배움 현장 story

40	네 꿈을 펼쳐라	경북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44	에듀피플	송주현 교사_아이들에게 자발성 교육, 학부모에게 교육멘토
48	교실혁명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 주도성 높이기
52	진로직업인	문화재 보존 및 복원 분야 손상된 문화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채움&비움 story

56	교육트렌드	해외의 대입제도와 우리 교육에의 시사점
60	교육진단	미래 세대를 위한 서·논술형 평가의 실태 및 과제
64	대한민국 섬&학교	전남 신안_‘제2의 제주도’를 꿈꾸는 자은도
68	도표로 읽는 교육통계	한국에 있는 유학생은 얼마나 될까?

나눔&소통 story

70	현장 속으로 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72	현장 속으로 ②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교육이 미래다’
75	명예기자 리포트 ①	담임교사의 책무
76	명예기자 리포트 ②	도심 속 스마트팜 ‘팍올치’에서 첨단농업·사회공헌 배운다
78	명예기자 리포트 ③	신당중,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폐교의 재탄생
80	함께학교 발언대	교사크리에이터협회의 차담회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오는 새 학기에는 2,741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학년 학생은 원하면 모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2~6학년은 기존의 방과후·돌봄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난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해 온 대전호수초등학교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부터 늘봄학교까지 우리나라 돌봄시스템의 역사를 돌아본다.

04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늘봄학교

10 늘봄학교 우수사례 대전호수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마을에서 함께 키운다

14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양한 ‘아침돌봄’ & 전국 최초 학교 밖 거점늘봄센터

18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에서 늘봄학교까지

특집 ①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늘봄학교

글 | 남윤철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사무관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이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과후’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가 없다. ‘돌봄’만 보더라도, 전체 초등학교생의 약 11.5%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 중이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많은 가정이 ‘돌봄 공백’을 걱정하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오후 1시에 정규수업을 마치게 되니까 말이다.

어린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걱정은 상당히 절실한 문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워킹맘이 퇴사나 이직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때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50.5%)’라고 한다(KB금융지주, ’19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돌봄의 문제가 부모의 경력단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이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이다. 실제 많은 가정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원 뽕뽕이를 돌리느라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사회적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부담을 개별 가정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구조다.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의 전환

늘봄학교는 부모 돌봄(parent’s care)에서 국가 돌봄(public care)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일부만 누리던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 체제를 혁신하여,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한다.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학교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부모에게는 지금보다 질적·양적 수준에서 더 나은 돌봄과 교육기회를 내 아이가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 중, ’23.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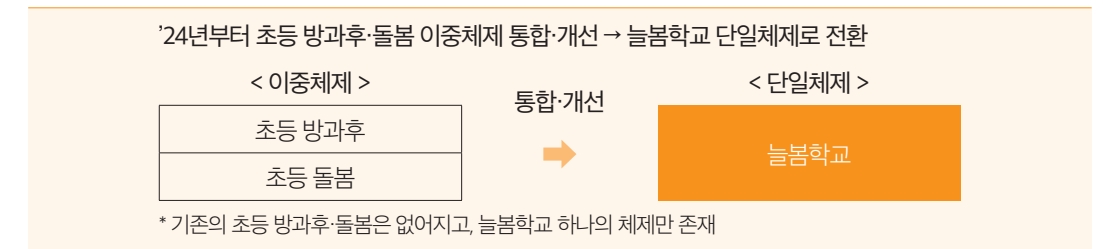
국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뜨겁다. 2024학년도 초1 예비학부모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교육부, 1.1.~1.8., 17개 시도교육청 52,655명 참여).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서는, ‘국민이 뽑은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1위’가 늘봄학교였다(34.8%).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이제 늘봄학교로 합쳐지고 더 개선된다. 즉,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이 별개로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에는 우선 준비가 되어 있는 2,741개 초등학교에서 먼저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 ※ 2024학년도 늘봄학교 명단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표 1] 늘봄학교 운영체제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점 ① :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늘봄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에는 초등학생 1학년이 ‘누구나 이용’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다. 2025년에는 초1~초2까지 혜택을 받고, 2026년에는 초1~초6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그 혜택을 받는다. 기존의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거나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늘봄학교 체제에서는 신청 자격이나 추첨, 탈락이 사라진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의 원하는 서비스(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포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올해 초1학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2~6학년까지 다른 학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을 쓸 예정이다. 올해 2~6학년은 늘봄학교의 ‘누구나 이용’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존에 누리던 방과후·돌봄 수준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늘봄학교 도입에 따라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2~6학년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 내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

한 공간을 새로 확충하고, 기존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학교의 기존공간인 일반교실, 특별실, 도서관 등을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일반교실을 겸용교실로 활용할 때는 교사연구실을 확충하는 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물론, 선생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더 우선이다.

학교 내의 공간과 자원으로 부족하다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는 학교 밖의 지자체,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대학의 유헴공간을 활용한다거나 지자체 체육공간, 도서관, 복지공간 등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서는 기존에 지역사회에 있던 방과후·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과 연계하여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점 ② : 초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제공

올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1학년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2시간의 프로그램은 초1학년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초1학년에게 제공하고, 내년에는 초1~2학년에게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이상의 학년들에게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여부는 재정 여건과 그간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2025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다.

[표 2] (예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차시 40분, 10분 휴식)

적응기 (3월)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2:00	정규수업				
	12:00~13:10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13:10~13:50	놀이음악	놀이한글	방송댄스	놀이체육	놀이미술
	13:50~14:00	침과 휴식				
	14:00~14:40	놀이체육	마음일기	놀이수학	음악줄넘기	놀이과학

자람기 (4월~)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3:10	정규수업 →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13:10~13:50	놀이음악	정규수업	창의·수학	정규수업	독서토론
	13:50~14:00	침과 휴식				
	14:00~14:40	놀이체육	창의과학	인성·독서	마음일기	창의미술
	14:40~14:50	침과 휴식				
	14:50~15:30	늘봄과정 (돌봄)	놀이한글	늘봄과정 (프로그램)	놀이체육	늘봄과정 (돌봄)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들은 체육(44.9%), 문화·예술(39.3%), 심리·정서(10.2%), 디지털(4.8%) 순으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1학년에게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2~6학년이 이용하는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학, 전문단체·협회 등과 연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 공급처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교육부는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등 국내 43개 단체와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기존에 정규수업 외에 운영하였던 ‘디지털 새싹’ 사업, 진로체험,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도 늘봄학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과 늘봄학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점 ③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늘봄학교는 ‘늘봄지원실’이라는 전담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늘봄지원실 기반의 운영체제 완성을 목표로 하여, 올해는 과도기 단계로서 전담 인력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한다. *공무원, 공무원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표 3] 늘봄지원실 기반의 운영체제

구분	과도기단계		최종완성
	❶ '24년 1학기	❷ '24년 2학기	❸ '25년
늘봄지원실	설치 추진	1교1실 설치·운영	1교1실 설치·운영
늘봄지원실장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등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등	지방공무원*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큰 학교에 전임발령
늘봄실무직원	늘봄 신규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교사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늘봄실무직원 등에게 방과후·돌봄 업무 이관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

↑

늘봄지원실
전담체제 완성

늘봄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

늘봄학교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결국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즐거워해야 하고, 아이들이 원해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늘봄학교 가고 싶어요! 정말 재미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늘봄학교가 지향하는 ‘늘 봄 햇살과 같은 따뜻함’을 우리 아이들이 꼭 느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는 함께 손을 맞잡고 늘봄학교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	앞으로 (늘봄학교)
이용 대상	방과후 참여율 50.3% 돌봄 참여율 11.5% * '23년 기준, (초1) 방과후 70.8% 돌봄 34.5% (초2) 방과후 66.1% 돌봄 25.9%	희망하는 초등학교생 100% * ('24년) 초1학년 100% ('25년) 초1~2학년 100% ('26년) 초1~6학년 100%
이용 시간	오후 1~5시까지 중심 * 돌봄은 수요일에 따라 오후 7시까지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최장 오후 8시)
비용	프로그램 비용 학생·학부모 부담 * 단, 저소득층 등은 무료수강권 제공	프로그램 비용 무료 * 연중 매일 2시간 이내(2개 프로그램) ('24년) 초1 ('25년~) 초1~2
프로그램	학교 인근의 고착화된 공급처 위주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우수공급처 확대 *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플랫폼, 「늘봄허브」 구축 운영('25년~)
운영 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돌봄), 일반학급 등(방과후)	학교 안 다양한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교실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운영 방식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 운영 *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 구축



늘봄학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늘봄학교에 가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원한다면 최장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모두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만 이용해도 되고, 2시간만 이용해도 됩니다. 정규수업 외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Q 늘봄학교는 돌봄교실을 탈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을 포함합니다. 늘봄학교가 더 큰 개념입니다. 돌봄교실 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초1학년은 늘봄학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올해는 아직 과도기 단계로서, 돌봄교실 신청을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존 체제인 돌봄교실과 늘봄학교가 병행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도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며, 기존 돌봄교실에 탈락한 학생도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원하는 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늘봄학교는 2시간 무료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 돌봄서비스를 더 원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더 듣고자 하면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유상입니다(수익자 부담).

Q 돌봄교실에 합격한 사람도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올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1학년에게는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학년이라면, 희망할 경우 모두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Q 2시간 무료라고는 하지만 초1학년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바로 수업을 또 듣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요?

A 아닙니다. 늘봄학교에서 1학년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1학년의 성장·발달과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1학년 초기에 필요한 학교적응 지원이나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특집 ②

늘봄학교 우수사례
대전호수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마을에서 함께 키운다

글·사진 | 편집실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마을돌봄교실에서 호수초등학교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쌍둥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기다리던 최승현 씨는 지난 1월 대전 호수초등학교 입학설명회를 다녀온 후 큰 걱정거리를 덜었다. 첫째 아이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내고 만족도가 높았던 터라 쌍둥이 남매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신입생 맞춤 새봄교실과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에 보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최 씨는 희망하는 신입생이 모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남매의 입학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대신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날은 휴가를 내서라도 온라인 신청에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학부모의 돌봄 걱정 덜기 위해 학교-지역사회 머리를 맞대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자리한 호수초등학교(교장 김옥세)는 지난 2022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복합화 시설로 만들어졌다. 신도시에 위치해 개교 당시 33학급이었던 학교는 해마다 학생 수가 늘어나 지난해에 5학급을 증설했고, 올해도 22개 교실을 늘릴 예정이다. 김옥세 교장은 당초 예상했던 18학급을 훨씬 웃도는 학생 수 때문에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학생 수가 94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인데다 학부모 대다수가 맞벌이 가정이고 다자녀 가정도 많아서 학교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 호수초는 지난 1년 동안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이다.

김 교장은 “개교 이후 교내에 모듈러 교실을 증축해 부족한 교실을 정비하고 나서도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와 돌봄교실의 격차가 커서 문제였다.”라고 설명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했다. 김 교장은 호수초 학부모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의원·주민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시설에 돌봄교실을 구축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주민의 75%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 인원의 80%가 찬성해 단지 내에 마을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자 마을돌봄교실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유수지 학부모는 “돌봄시설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벌이 가정도 아니고, 이미 양육이 끝나서 오히려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 세대에서도 마을의 아이들을 다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주민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라며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와 소통해 주어서 마을돌봄교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호수초는 교내에 돌봄전용교실 4실과 도서관에 돌봄교실 1실을 마련하는 등 5곳의 돌봄교실을 구축해 4명의 초등돌봄전담사가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마을돌봄이 이뤄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 돌봄교실 2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교실 3실을 구축했으며, 마을활동가 3명과 자원봉사자 15명이 1~4학년을 돌보고 있다.

학교는 시간대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수요를 분석해 돌봄 시간이 짧은 초1을 위한 새봄교실, 저녁 돌봄도 가능한 학교 돌봄교실, 저녁 일시 돌봄이 가능한 마을돌봄교실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고 학교와 마을 공간을 오가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의 지원과 교육청 지원사업인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사업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 88명(방학중 83명)의 학생들이 학교 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며 마을돌봄교실에서는 50명의 학생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에서 미술특기 수업을 듣고 있던 예준희(2학년) 학생은 “아빠와 함께 아침 8시 30분에 돌봄교실로 등교한다.”라며 “방학 중이지만, 친구들과 그림도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한다. 같은 시간 마을돌봄교실에서는 입주민 도서관에서 호수반 학생들이 참여한 독서프로그램이 한창이다. 초1~2 학생이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 이용 방법과 규범을 배우며 책을 읽고 있다. 입주민들과 어울려 책을 읽고 난 학생들은 급식시간에 맞춰 마을돌봄교실로 이동한다. 마을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급식과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방학 동안 학생들은

돌봄교실 겸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고 있다.



직접 ‘예쁜 말 고운 말’ 인형극을 제작해 공연을 하고,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즐기며 영화관람을 하는 등 특별 활동을 진행했다.

**1~2학년 돌봄은 학교 돌봄교실 위주로,
3~6학년은 마을돌봄교실&자율동아리 지원**

올해 호수초 새봄교실은 4학급 77명으로 늘어났다. 새봄교실은 초1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는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후 오후 2시 30분까지 짧은 돌봄이 필요한 초1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한 학기 동안 64명이 이용했으며, 올해에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모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운영한다. 특히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새봄교실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돌봄교실과 마을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동은 자유로운 편이며, 마을돌봄교실에 있다가 학교로 이동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마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도 있다. 학생이 학교와 마을 사이를 이동할 때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원봉사자가 함께 움직인다. 올해는 방과후학교 학년별 이용률을 고려해 1~2학년은 학교 돌봄교실 위주로 배치하고, 3~6학년은 마을돌봄교실에 배치하고 안전 인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교가 대전시 서구에서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지정되면서 돌봄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 교장은 “학부모들이 학교 돌봄교실과 마을돌봄교실 사이에 격차를 느낄 수 없도록 마을돌봄교실에서도 급식과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창의보드게임, 방송댄스, 환경체험, 그림책놀이, 창

의미술, 놀이체육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학년은 돌봄교실 내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늘봄학교,
‘시간돌봄’ 넘어 ‘마음돌봄’ 기대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호수초와 밀접한 인근 생태공원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호수초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심 속 생태와 기후환경 교육을 주제로 도안공원에서 진행한 ‘자연아 놀자’ 생태 탐방과 대전의 3대 하천에서 만날 수 있는 물고기를 채집하고 알아보는 대전 서구 ‘노루벌 탐사대’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았다. 참가 학생들은 마을의 자연과 생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 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5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티볼 교실’을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운영하면서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한남대와는 즉흥극, 플래시몹 등 영상 제작을 통해 창의력을 높이는 학생 주도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소셜벤처기업 (주)맘이랜서와 함께 메타버스 체험, 바다쓰레기 줍기 게임 만들기 등 디지털 새싹 캠프를 통

마을돌봄교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인형으로 공연한 인형극 ‘예쁜 말 고운 말’



- 1 1~2학년은 학교 돌봄교실 중심으로 돌봄과 교육을 해오고 있다.
- 2 호수초 방과후 프로그램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학생, 학부모로부터 인기가 많다. 바이올린 교실
- 3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마을돌봄교실로 이동하는 아이들



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이 자율동아리를 통해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지역주민을 초청해 동아리 발표회와 전시회를 열었고, 이는 지역사회와 밀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지역·대학 연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학부모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바둑, 창의미술, 클레이아트, 바이올린, 방송댄스, 세계문화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컴퓨터, 과학탐구, 코딩 등의 디지털·창의 프로그램, 주산암산, 교과수학, 놀이영어, 독서논술 등의 교과 보충 프로그램, 뉴스포츠, 축구, 음악줄넘기, 배드민턴과 같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약 930명, 겨울방학에는 840여 명이 방과후학교를 이용했다.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오종미 교사는 “우리 학교 방과후학교는 대학교 수강 신청 못지않게 경쟁률이 치열하다.”라며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을 높이는 등 늘 학부모와 학교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개교 3주년을 맞이한 호수초. “이제는 질적 성장을 꾀할 때”라는 김 교장은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 수요를 해소했다면 이제는 학생 특성을 고려한 개별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아교육 자격증 소지자 등 돌봄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끊임없이 학부모와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늘봄학교가 시간돌봄을 넘어 마음돌봄 단계에 안착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②

특집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양한 '아침돌봄' & 전국 최초 학교 밖 거점늘봄센터

글 | 편집실·사진 |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음초등학교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위해서 선정된 5개 시도교육청 중 하나로 시범학교로 선정된 관내 30교, 3,599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이른 등교가 필요한 1~6학년 초등학생 897명은 '아침이 행복한 학교' 프로그램을, 신입생 644명은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에는 2,058명이 각각 참여했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실시한 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 평균 95.6%, 학생은 평균 94.1%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공적 돌봄인 늘봄학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시범학교를 운영한 경험과 수요자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초 60교에서 '인천형 늘봄모델학교' 출범, 돌봄 유형 다양화한 아침돌봄 프로그램

인천시교육청은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총 6개 방과후학교·늘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늘봄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늘봄지원센터에선 늘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포함해 늘봄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지원을 위한 협의회·설명회·워크숍 추진,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우수 운영사례 공유와 홍보, 행정업무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업무 추진 등 폭넓은 업무를 감당하면서 학교 현장에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올해 관내 초등학교 60교에서 시작되는 '인천형 늘봄모델학교'는 아침돌봄(아침이 행복한 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오후돌봄 등을 운영한다.

아침돌봄의 경우, 실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초등학교 260교 중 253교 4,668명의 학부모가 아침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아침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늘봄학교에서 아침돌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형과 틈새돌봄형 중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돌봄 유형도 다양화했다.

프로그램형의 경우 '아침이 행복한 학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독서교실, 협동놀이, 음악활동, 책놀이, 요가 등 다양한 만들기와 놀이·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인천시 내 비영리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2024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공모를 통해 역량을 갖춘 22개 지역기관을 선정했고, 선정된 지역기관은 학교와의 매칭을 통해 학교로 찾아가 아침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방과후에 학생들이 인근 지역기관에 가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내용은 언플러그드 컴퓨터 보드게임, 창의과학, 또래놀이, 악기교실, 베이킹, 디지털 공예, 미술, 체육활동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초1 정규수업 후 하루 2시간 이내로, 2~6학년은 학교별 맞춤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3월 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하교 시간이 빠르고 개별 등·하교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반영해 '초1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신입생 중 희망 학생에게 1학

년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게 목적이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청한 1학년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수업을 마친 뒤 문화예술, 심리·정서, 놀이·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2시간 이내로 경험하면서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급당 20명 내외, 학교별 1학급 이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학교당 1,6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지급된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은 2~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에선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AI, 건축, 코딩, 진로체험 등 학생들의 관심도

를 적극 반영해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교에는 학교당 1,2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틈새돌봄교실과 오후돌봄교실도 운영한다. 시범학교 운영 당시 방과후학교 수업과 수업 사이 빈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던 틈새돌봄에 참여한 학생은 26교 729명, 정규수업이나 방과후학교가 끝난 후부터 19시까지 이용하는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은 17교 83명, 방학중 돌봄에는 30교 1,288명이 참여했다.

2024년에는 이 같은 틈새돌봄, 오후돌봄, 방학중 돌봄 등 돌봄유형 다양화를 위한 지원비로 학교 돌봄교실 수에 따라 1실당 5백만 원부터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초등돌봄전담사, 자원봉사자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인력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초등학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인천시 최초 거점형 늘봄센터 3월 개관

학교 밖에 설치되는 전국 최초의 거점돌봄센터

반복되는 돌봄 대기를 해소하고 유희공간이 없는 학교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거점형 늘봄센터도 만들었다.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내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루원지웰시티몰 C동 2층 전체 436.5㎡ 규모에 설치되는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는 오는 3월 4일 개관할 예정이다. 센터가 문을 열면 학교 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했던 인근 가원초, 가원초, 봉수초 돌봄대기 학생 60여 명이 학교 밖 돌봄센터에서 공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 센터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거점형 늘봄센터 부동산을 매입,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마쳤다. 향후 돌봄대기 수요가 많은 동부와 북부 지역에도 2호, 3호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에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도 문을 연다.

안전복지과 윤탁규 주무관은 “교육정책에서의 돌봄은 학교 안에서만 운영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적극 행정의 관점에서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학교 밖으로 추진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운영교에 2명의 추가 인력 배치

지속적인 인력·재정 지원으로 성공적 안착 기대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자면 교직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형 늘봄모델학교’에선 방과후학교 업무



인수초 초1 에듀케어(위)와 대월초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전담인력(늘봄학교 전담인력)과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원 총 2명이 60교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충원된 방과후학교 업무전담인력은 아침이 행복한 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등 늘봄학교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어서 기존 교직원의 업무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형 늘봄모델학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복지과 이은정 장학사는 “인천형 늘봄모델학교의 강점은 특화된 아침돌봄 프로그램과 늘봄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안정적 인력지원”이라면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초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23년에는 1학기에만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매일 2시간 이내로 1년간 지속 운영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지속적인 인력 및 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에서 늘봄학교까지

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늘봄학교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에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교육과 돌봄의 융합체계이다.

늘봄학교가 이제 본격적 확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2월 5일 교육부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자신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선언하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재능 기부까지 약속하였다.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늘봄학교 도입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왜 학교가 돌봄의 공간이 되어야 하나, 자녀 돌봄은 부모의 책임이지 왜 국가 책임인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늘봄학교는 갑자기 나타났나? 공간으로서 학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국가책임 돌봄이란 무엇인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융합체계

먼저, 늘봄학교는 갑자기 나타났나?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융합체계이다. 여기에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이 보

완적으로 늘봄학교에 포함된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의 시작은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 개혁안에 근거하여 특기적성교육 중심 방과후 교육 활동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 초반 저출산의 주요인 중 하나로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다양한 명칭과 프로그램의 방과후 교육 활동이 방과후학교로 통합되어 2006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방과후 보육교실’로서 2006년부터 도입·운영되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 돌봄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초등돌봄 절벽’ 현상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초등돌봄교실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돌봄서비스로서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교육 관련 법에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육 공간으로서 학교 안에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법령 안에 두기도 곤란하다. 결국 초등돌봄교실의 획기적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초등돌봄교실 자리 얻기는 로또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지속될 뿐이다.

정치 진영 초월한 정책 과제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지난 20년 동안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한 결과로써 나왔다. 두 사업이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 다른 어떤 정책 어젠다보다도 정치 진영을 초월하여 오랜 시간 논의를 했던 정책 과제가 늘봄학교이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 오후 교육·돌봄 융합 서비스 도입을 지난 몇 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다.

먼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대 공

약 중 하나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실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공약의 3대 영역이 ①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자녀 돌봄부담 해소 ②육아휴직 확대 ③아빠·엄마가 함께하는 더불어 돌봄이었는데, 늘봄학교는 ①영역 ‘자녀 돌봄부담 해소’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간 연장과 전 학년 확대’ 관련 내용이다.

집권 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초등 전 학년에 걸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더 놀이학교’ 도입을 추진하였다. 2018년 8월 ‘(가칭)더 놀이학교 도입 필요성과 쟁점을 논하다’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면서 초등 오후 과정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더 놀이학교’ 제안의 모델로서 독일 전일제학교를 비롯한 해외 각국 초등학교 오후 프로그램 사례 소개도 있었다.

현재 국민의 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020년 7월 ‘저출생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대응 방안 중 하나로서 ‘전일제 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한국형 전일제교육’을 제안하였다. 그 사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로서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 대안 중 하나로 전일제학교 도입 논의를 이어갔다. 2022년 3월 출간된 <온종일 돌봄사회-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13>은 그 결과물 중 하나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초등 돌봄·교육 체계 도입 및 확대가 주요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돌봄국가책임’을 5대 비전으로 ‘민생안정, 20대 핵심추진과제 중 12번’으로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전 학년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도입과 초등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국가 교육과정 외 지역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기본학력, 예술·체육, 체험활동 등 학생

아이의 안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사교육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학교 기반 늘봄학교의 존재가 필요하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공약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가칭'더 놀이학교'의 확대판이었다. 자녀돌봄 관련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공약은 '부모의 육아 재택 지원, 유보통합,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8시까지 확대'였다. 미래통합당이 제안했던 전일제학교를 잇는 맥락이었다. 집권 후 전일제학교 도입은 윤석열 행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하였다.

결국 늘봄학교는 20년 가까이 성과와 시행착오를 경험해 온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토대로 등장하였으며, 더 놀이학교, 전일제학교, 돌봄국가책임, 국가돌봄책임 등 수년에 걸친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쪽의 더 놀이학교와 다른 한쪽의 전일제학교가 늘봄학교라는 명칭으로 구체화하였을 뿐이다.

왜 학교 공간 내 돌봄인가?

그렇다면 왜 지역사회 돌봄이 아니라 학교 공간 내 돌봄인가? 초등돌봄절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그동안 없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본격화하였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동안 초등돌봄교실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로서 출발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 우선 운영의 역사가 있다. 현재 중산층 아동 이용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저소득층 대상 이미지로 인한 사업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외 지역사회돌봄 다변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역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용 아동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정원 자체도 전국적으로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어린이가 방과후학교에서 센터로 가는 과제가 결국 부모 몫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호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한계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동 사업으로 2021년부터 '학교돌봄터' 사업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관계가 애매모호하다.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그러나 학교돌봄터 돌봄교사는 지자체 소속이다. 같은 돌봄노동을 하지만 학교돌봄터 교사 처우가 더 불안정하다. 명칭만 돌봄교사일 뿐 법적 근거도 없다.

지자체도 적극적이지 않다. 중앙부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부처든지 주체로서 사업을 확실하게 주관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돌봄터 이용 아동 수가 천 명 단위도 안 되는 수준이 보여주는 한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초등돌봄체계의 관리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초등학교 시기에는 단순한 돌봄·보호에서 더 나아가 교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커진다. 막 태어난 아이의 뇌 발달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영유아기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돌봄에 주로 할애했던 오후 시간에 교육을 융합해야 하는 과제가 등장하는 순간



이다. 늘봄학교의 본격적 확대를 맞이하여 교육부에서 '국가책임 돌봄'이라 하지 않고 '국가책임 교육·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오후 학교 시간을 돌봄뿐 아니라 교육으로 구성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서 정규교육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없는 체육, 문화·예술, 기후·환경, 창의과학, 심리·정서 영역을 구성한 것은 지역사회돌봄체계나 사교육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하면서도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학교 기반 늘봄학교의 존재 이유

마지막으로, '국가책임 돌봄'은 이제 '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제치고 국가가 아이를 대신 키워주고 가르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과거 '온종일 돌봄'이 됐든 현재 '늘봄학교'가 됐든 학교에서 아이가 오후 7~8시까지 있는 경우는 예외적 상황이다. 대다수 아이들은 누군가가 오후 4~5시면 데리러 온다. 하루빨리 노동시장 개혁이 되어서, 특히 부모의 경우에는 오후 4~5시가 되면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올 수 있는 일상이 자리 잡아야 한다. 부모가 일하

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것이 국가책임 돌봄의 본질이다. 여기에 이제는 교육이 융합되는 변화가 더해지는 것이다. 부모가 돌보도록 해야지 왜 학교에 아이를 잡아두냐고들 한다. 맞는 이야기다. 다만, 부모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학교에 아이가 머물면서 돌봄에 더한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인 것이다.

늘봄학교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약 20년에 걸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의 결과물이다. 정치 진영을 초월하여 수년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아이의 안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돌봄체계와 사교육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학교 기반 늘봄학교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늘봄학교는 부모가 할 수 없는 시간에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교육과 돌봄의 융합체계이다. 지역에 따라, 학교 현장에 따라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미룰 수 없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교육 격차, 사교육비 부담 증가, 저출산·저출생이라는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공간으로서 늘봄학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㉞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나보세요!”

그동안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를 낮추고 자녀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주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점 등 일하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면 부모들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집니다.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수업 전 아침 시간과 수업을 마치고 희망하는 경우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늘봄학교’ 확대는 학부모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정규수업 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고 개선한 단일체제입니다.

올해는 돌봄교실 탈락 걱정 없이 희망하는 초1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습니다.

1학년에게는 수준에 맞는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며, 2025년에는 2학년까지 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4년(본격도입)	'25년(고도화)	'26년(완성)
집중지원대상	초1	초1~2	모든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희망 초1 100%	희망 초1~2 100%	희망 초1~6 100%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초1 희망자	초1~2 희망자	초1~2 희망자

*'24년~'25년, 집중 대상이 아닌 학년에게도 기존 방과후·돌봄에 참여했던 수준을 보장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교 공간 외에도 대학, 도서관,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등 학교 밖의 교육공간도 활용됩니다.

또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과도기 단계로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 등을 배치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여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25년 완성을 목표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늘봄지원실’ 기반의 운영체제가 최종 완성되면 교원은 더 이상 방과후·돌봄 업무를 맡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1예비학부모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으며, 오후 4시까지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오후 5~8시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도 13.7%에 달했습니다.

* 교육부, 초1예비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관련 전수조사(2024.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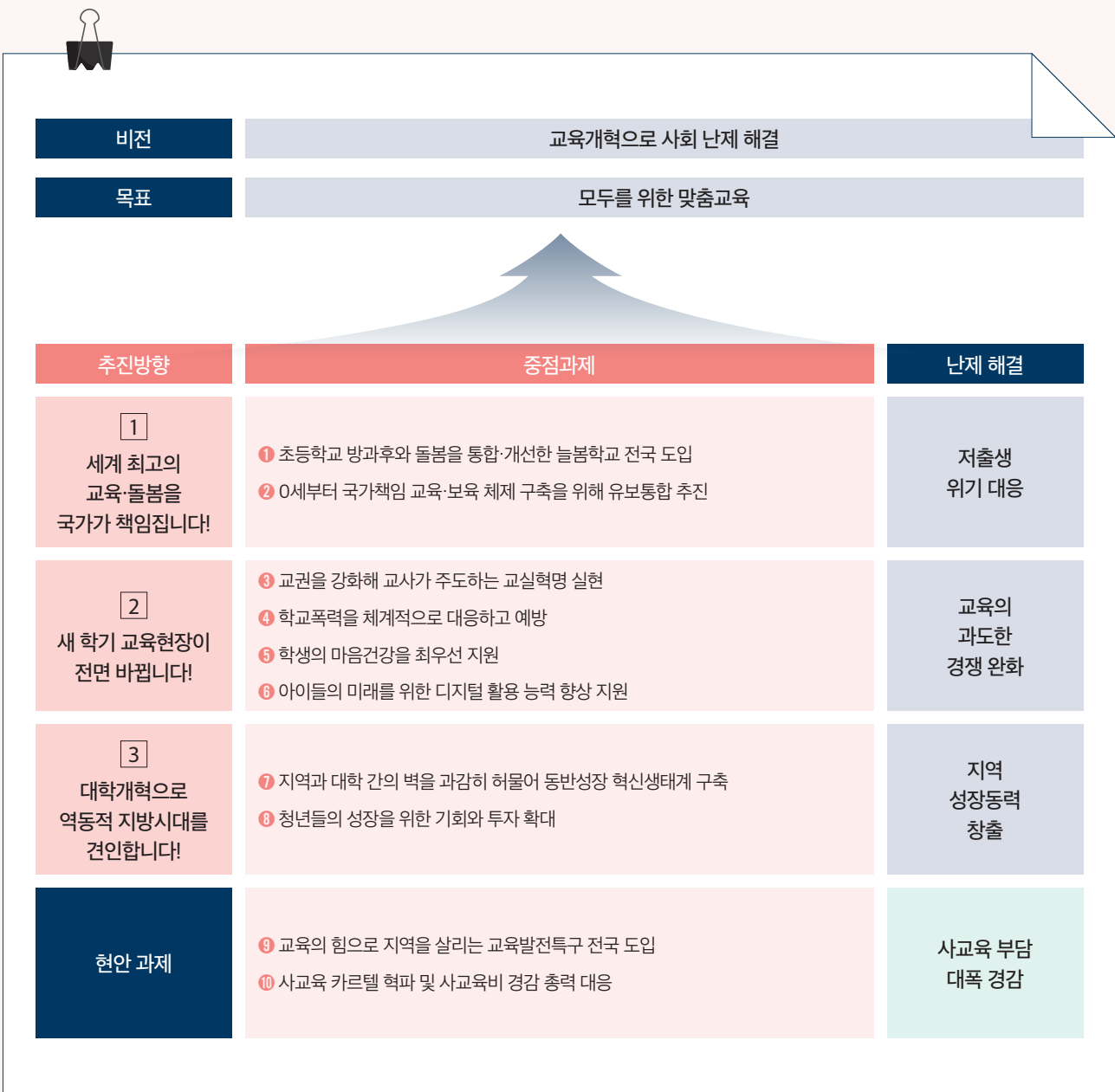
늘봄학교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정규수업 외에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선생님들은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늘봄처럼 따뜻한 학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교육부 10대 중점과제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글 | 교육부 기획담당관

교육부는 1월 24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는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4년을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1.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하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741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까지 초등학교 2학년,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지금까지(기존 방과후·돌봄)	앞으로는(늘봄학교)
대상	방과후 50.3% / 돌봄 11.5%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시간	방과후부터 최장 오후 7시까지	아침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프로그램	학교 인근 공급처 위주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우수 기관 연계)
운영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교원과 분리된 전담운영 체제

둘,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완성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한다.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하여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확대(2023년 월 35만 원 → 2024년 월 40만 원)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2. 새 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셋,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2월에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하고, 3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한다.

3월에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프로젝트, 토론 등 수업 방식을 전환하고 이와 연계한 평가혁신을 통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넷,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 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또한,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여 명 증원한 1,127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담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다섯,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학교급별(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고등학교)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하여 내년에 현장 적용하고,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위(Wee) 프로젝트)도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한다.

여섯,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3. 대학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합니다!

일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는 글로컬(Glocal)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작년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이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포항공대, 울산대) 등과 같이 담대한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여덟,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대학혁신지원사업(2024년 8,852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2024년 5,722억 원)과 연계하여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도 경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4곳(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약 3,200명의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이다.

4. 현안 과제

아홉,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2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차근을 도모할 계획이다.

열,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EBS 교재를 활용한 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❷

2024년,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폭 확대한다

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교육 지표 2023」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그러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게 등록금,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2023년 연간 평균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20만 원, 사립대학이 757만 원이었다. 이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단가 인상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인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되는데, 국가장학금 I 유형보다 높은 단가로 지원되며, 셋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표 1] 2024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연간 지원단가 (단위 :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3년	I 유형		700(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700(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24년	I 유형		전액	570	570	570	420	420	42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전액	570	570	570	480	480	48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 확대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하는 대학이 지원 대상이 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은 2023년보다 500억 원 증액하여, 2024년에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II 유형 예산 배분 시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지역인재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한다. 종전에는 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대학이 자율 설정) 50% 이하로 선발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각 지역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하여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장학금 신청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하였다.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확대

교육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 국가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였던 근로장학생 지원 자격을 9구간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근로장학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 인원을 2023년 대비 2만 명 늘려, 2024년에 총 14만 명을 지원한다.

[표 2]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인원	총 12만 명 (교내: 6만 명, 교외: 6만 명)	총 14만 명 (교내: 7.5만 명, 교외: 6.5만 명)
지원자격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근로단가	교내 근로단가: 9620원	교내 근로단가: 9,860원
	교외 근로단가: 11,150원	교외 근로단가: 12,220원

양질의 근로지 확대 추진

청년들의 내실 있는 근로 경험 지원을 위한 양질의 근로지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 2024년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지 확대를 위해 근로 시작 전 사전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 우수기업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취업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근로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 교외 근로기관(22, 총 8,893개) : 민간기업(29%), 공공기관(22%), 교육기관(24%), 복지기관(15%) 등

[표 3] 근로장학 활동 유형

	유형	근로내용	근로단가
교내 근로	일반 교내근로	대학 내 행정실, 도서관 등에서 업무 지원	9,860원 (대학이 20% 대응투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이동 및 학업 보조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외 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업무 지원	12,220원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초·중등 학생 대상 학습지도 및 멘토링 활동	

다양한 전공 분야의 우수 인재에 장학금 지원

교육부는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문100년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비전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 장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별 규정에 따라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일부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도 지원한다.

드림장학금 지원

드림장학금 지원 사업은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매년 3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드림장학생들에게는 고교 졸업 전까지 월 50~70만 원의 학업장려비가 지원되며, 이들이 졸업 후 해외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연간 6만 USD 한도 내에서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학생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함께 교육부는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로 ’23년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4.97%*)보다 약 3.27%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학기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였다.

*’23년 1~11월 예금은행 대출금리(가계대출) 평균값(출처:한국은행)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 확대

2024학년도부터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에서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생활비 마련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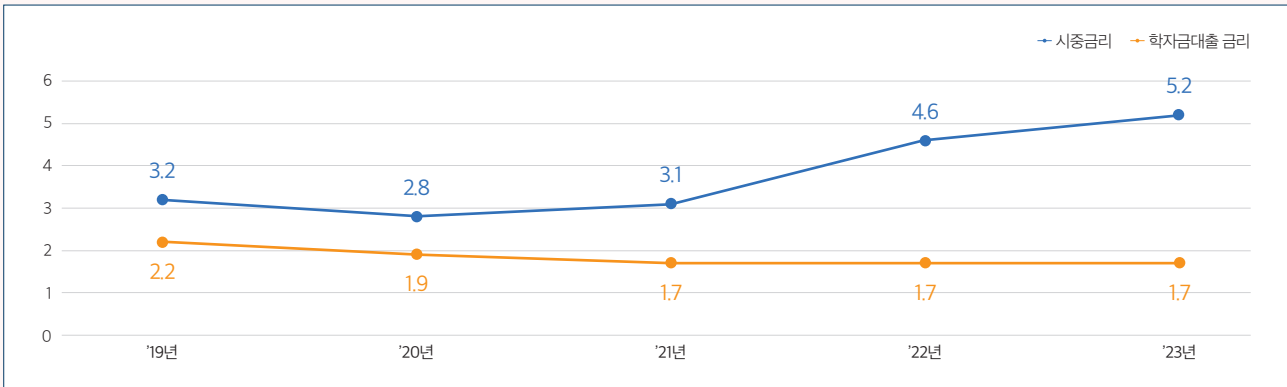
저금리 전환 대출 지속 시행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에도 지속 시행된다. 올해가 그 시행 마지막 해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금리 전환대출 미실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표 4]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

연도	’09	’10		’11	’12	...	’18	’19	’20		’21	’22	’23	’24
학기	2	1	2	1·2	1·2		1·2		1	2	1·2			1
금리	5.8%	5.7%	5.2%	4.9%	3.9%	...	2.2%		2.0%	1.85%	1.7%			1.7%

[그림 1] 시중금리와 학자금대출 금리 비교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개시 기준이 되는 상환기준소득*을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표 5]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현황

(단위 : 만 원)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환기준소득 (총급여기준)	2,013	2,080	2,174	2,280	2,394	2,525	2,67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대상 확대

2023년 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3.12.26.공포)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을 포함한 상환시작 전까지로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 5구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대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표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 관련 주요 개선사항

구분		현행	개선(’24.7.1.~)
이자면제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기간	재학기간+상환 시작 전까지
	학자금지원 1~5구간	없음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 시작 전까지
상환유예등	대상	실직·폐업·육아휴직(2년)	실직·폐업·육아휴직(2년)+재난 발생 시
	이자면제	없음	유예기간 이자면제

2024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현재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의 학부생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4학년도 2학기부터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까지, 생활비대출의 경우 학자금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해 확대 지원한다. 이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4년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한 학비 부담 경감 혜택이 늘어난다.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대학생들이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교육혁신24

경남 통학안전 책임지는,



글 | 편집실 사진 |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대응하는 행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매년 1만여 명 이상이 사상당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389명이었으며, 사고유형별로는 횡단 중 사고가 2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도통행 중, 보도통행 중 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한 아이로 키우자’는 뜻과 ‘아이가 다니는 안전한 길’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경상남도교육청의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를 소개한다.



등굣길, 자원봉사자들이 통학안전지도를 하고 있다.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경찰청·민간단체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학교 주변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환경을 전자지도 형태로 구성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http://iro.gne.go.kr>)’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9월 첫선을 보인 ‘안전아이로’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범위 안의 통학로 환경을 전자지도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경남교육청 행정국 안전총괄과 정지윤(통학안전담당) 사무관은 “‘안전아이로’는 학부모·학생·지역주민·업무 관련자에게 통학로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속적으로 통학로를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초등학교 인근의 교통안전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안전아이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위험지역 △교통안전 의견 △오류 등록 등 메뉴로 구성돼 있다.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안에는 주요 통학로 보행자 동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노면 표시, 횡단보도·신호기 등이 자세하게 들어있다. 이외에도 보·차도 미분리, 위험 요소, 교통사고지점 등 위험지역까지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아이로의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교통안전 상시 정비 체계는 기관별 통학로 안전에 대한 중복 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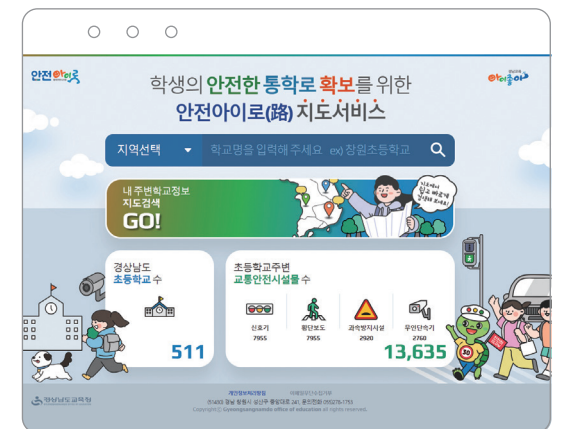
특히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경남도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 구축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를 바탕으로 최신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달라진 ‘안전아이로’에서는 그림지도와 위성지도, 야간지도를 함

게 볼 수 있으며, 지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는 물론, 횡단보도 위치, 무인 단속 카메라 위치, 과속방지턱, 방호 울타리, 학교 주변 봉사자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험지역 정보를 통해 보행자도로(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고, 보행 어린이사고나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자전거사고, 사고지점 등을 표시했다.

‘안전아이로’는 매달 2만 4천 건 내외로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안전아이로’를 통해 그동안 무심하게 보았던 학교 주변 통학환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됐다는 이용자들의 긍정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또 경남교육청은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협업해오고 있다. 통학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녹색어머니들과 안전아이로 이용자들의 의견은 경찰·지자체와 공유하여 안전아이로 정보를 최신화하고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해 왔다.

정 사무관은 “지난해에는 ‘안전아이로’에 등록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분석해 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미지정된 학교를 조사했다. 이후 지자체

안전아이로 메인화면. 학교 주변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환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에 개선을 요청해 신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신청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장 변화와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안전아이로’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3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바른 보행습관 교육하는 ‘아이로지킴이’

경남교육청은 ‘안전아이로’ 외에도 그동안 가방안전덮개와 안심우산을 도입해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고 학생 교통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 왔다. 이는 교통사고 감소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에 보고된 중상 이상의 학생 교통사고 사상자가 2022년 61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40건으로 크게 줄었다.

경남교육청은 ‘안전아이로’를 교통안전 교육자료와 연계하는 등 다방면으로의 활용을 검토하는 한편, 더욱 현장과 밀착하여 통학안전을 확보하고자 올해 ‘아이로지킴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로지킴이’는 교통안전지도 자원봉사자가 통학로를 이용하여 어린이를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면서 올바른 보행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하는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이다.

정 사무관은 “안전아이로를 통해 통학 경로가 복잡하거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초등학교를 조사하여 자원봉사자들이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 및 물품 지원, 매뉴얼 보급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안전한 학교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1 ‘아이로지킴이’는 어린이를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면서 올바른 보행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2 경남교육청에서 개발한 가방안전덮개



몰아보는 교육뉴스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초·중·고 및 중·고에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 교당 최대 45억 지원

교육부는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도입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다.

1월 8일 발표한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를 10개 내외로 선정하고 학교당 총 35억~45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 2월, 8개교 116명의 전문기술석사 첫 배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월 24~25일 양일간 힐튼 호텔(경주)에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를 개최했다.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직자의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으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6개교를 마이스터대로 선정·지원했다. 올해는 전문기술석사와정을 신규로 인가받은 대학 중 3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9개교(2023년 6개교+신규 3개교)를 지원한다. 2024년 2월에는 총 8개교에서 116명의 전문기술석사가 첫 배출됐다. 학위취득자 중 105명(90.3%)이 일반대학원 학위취득 기준과는 차별화된 고숙련자격증(2명), 특허(5명), 기업 애로기술 해결 또는 기술 개발 보고서(98명) 등 비논문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 체제 확정

글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배경

대입 4년 예고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입제도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변화될 내용을 예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제도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입제도는 늦어도 반드시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따라서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이며, 새 학기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적용된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는 기존의 대입제도 체제에서 변화 없이 동일하게 운영된다.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춰서 출제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제도 개편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제까지 만 30년의 역사를 가진 수능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새 교육과정에 맞춰 크고 작은 개편을 겪어 왔다.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추진되었다. 올해 중3인 학생들이 2025년 고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고교학점제로 배우고, 그에 맞게 설계된 2028 대입제도로 입시를 치르는 것이다.

수능 및 고교 내신평가 현황 분석

현재 수능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총 17개 선택과목이 있으며, 국어와 수학 영역에도 각각 2개, 3개의 선택과목이 있다. 당초 수능에 선택과목을 도입한 취지는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공부하고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각각의 선택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의 특성과 문항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같은 원점수를 받고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이른바 선택과목 유불리 현상이 발생했다. 점수 받기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으로 학생들의 선택이 집중되면서 수능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 개인별 진학 분야, 관심·흥미 등 본래 도입 목적과 관련이 적어졌고, 단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의 경우 ‘지구과학 I’, ‘생활과 윤리’ 과목은 전체 수험생의 30% 이상이 선택한 반면, ‘물리학Ⅱ’, ‘경제’ 등의 과목 선택 비율은 각각 1% 내외에 그쳤다. 또한,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폐지되었음에도 수능 수학 선택과목이나 과학탐구 선택 여부를 기준으로 대입에서 형식적인 계열 구별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융합적 학습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현재 고교 내신 평가는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 4%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9등급제가 지속되고 있다. 학생 수 13명 미만인 소규모학교나 소인수과목은 1등급이 아예 산출되지 않으므로 다니는 학교의 규모에 따른 유불리 문제, 다양한 맞춤형 과목들이 운영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생겨난다. 2023년에 1등급이 나오지 않은 고등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수능과 내신에서 각각 예상되는 문제점과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는 전국적으로 43개에 달했다. 나아가, 지난 2021년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상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하면서, 2·3학년 시기의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제(A~E 절대평가)를 적용한다는 새로운 평가방식이 예고되어 있었다. 만약 예고된 내용과 같이 학년별로 다른 평가 체제가 적용될 경우 아직 학생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고1 시기의 내신이 입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나친 내신 경쟁 과열이나 중학교 단계의 선행학습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학생부 수시 전형보다는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22 일반고 고1 학업중단을 2.3%), 이러한 경향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수능과 내신에서 각각 예상되는 문제점과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주요 내용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2028 수능 개편안은 평가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과목·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융합형 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우선,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해 모든 수험생을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즉, 수능 성적은 학생의 실력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선택과목별 변수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출제 과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하여 사회와 과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수능에서 평가한다. 2028 수능부터는 수험생이 사회나 과학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없고 두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소양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융합적·창의적인 지식 탐구를 이어갈 수 있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는 성적 제공 방식 등 그 외의 수능 체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해 급격한 수능의 변화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수능의 불공정 요소들을 확실히 개선하고자 하였다.

한편, 당초 개편 시안에 선택과목 형태로 신설 여부를 논의하였던 ‘심화수학 영역’은 통합형·융합형 수능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충분히 심화 과목에 대한 학습 결과를 대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수능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일각에서는 이공계열 학과 공부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 수능에서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 응시하고 있고, 2028 수능 출제 범위에 ‘미적분 I’은 계속 포함되기 때문에 미적분의 기초 내용은 수능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수능 이상으로 학생부가 중요한 대입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2028 내신 개편을 통해 내신 상대평가·절대평가 성적이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고 입시에 활용될 예정이므로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개인별 적성에 맞게 심화 학습한 결과가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

영역		현행 (~2027 수능)	개편안 (2028 수능~)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 1	공통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 1	공통
영어		공통	공통
한국사		공통	공통
탐구	사회·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 2 ·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과학 : 8과목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 사회 : 공통 (통합사회) · 과학 : 공통 (통합과학)
	직업	1과목 : 5과목 중 택 1 2과목 : 공통 + [1과목]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9과목 중 택 1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 음영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고교 내신체제 개편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의 안착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뒷받침하면서, 내신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학년, 전 과목에 상대평가 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이미 A~E 등 5등급 체제로 평가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5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5등급제 적용으로 기존 9등급제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협업능력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소통 역량을 고취할 수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과목별 내신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 교양 등 이미 전면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었던 과목들과 사회·과학 교과와의 융합 선택 과목*은 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하지 않는다.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총 9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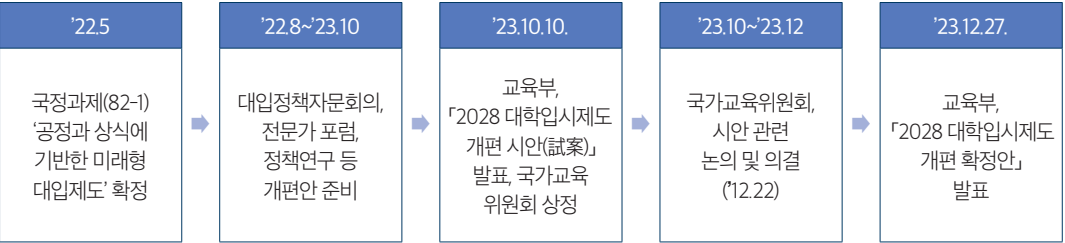
사회·과학 교과와의 융합 선택과목에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의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입 평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신 시험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표 2]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그림 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



향후 2028 대학입시제도 안착 지원 계획

확정된 2028 대학입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개편안은 큰 틀에서의 수능, 내신 제도 변화만을 담고 있으므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문가 연구와 실제 학생 선발을 맡고 있는 대학의 전형 설계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2028 대입개편을 계기로 처음 수능 과목에 포함된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어떻게 수능에 출제될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예시문항을 개발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존중해 대학이 주도하는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들은 학생·학부모, 고교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한 홍보도 병행하고자 한다. 특히, 내신 5등급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만큼,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변화된 내신 평가 체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게 관련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네 꿈을 펼쳐라

경북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최고의 하모니를 소개합니다!

글 | 하현우 명예기자 사진 | 편집실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전진현 지휘자와 단원들이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취재진의 등장엔 장난기 품은 얼굴로 아이들이 힐끔힐끔 눈길을 보낸다. 크기가 규격화 되어 있는 관악기를 연주하기에는 아직 작은 고사리손을 한 아이들이다. 2022년 제5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전체 대상, 2023년 제58회 전국초등학생음악경연대회 1위,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1위. 이것은 구미왕산초등학교(교장 이용희) 학생 오케스트라가 중고등학생들을 제치고 받은 지난 2년간의 성적표다. 그 수많은 학생오케스트라의 물결 속에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4년 창단된 구미왕산초등학교 학생오케스트라는 3~6학년 70명으로 구성된 풀편성 학생오케스트라다. ‘풀편성’ 오케스트라는 낱말 뜻 그대로 오케스트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악기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학교오케스트라에서는 여건상 모든 악기를 구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학교오케스트라,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바순, 튜바, 오보에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낯센과 설렘이 교차했다. 어른들의 프로 오케스트라 연습실을 그대로 복제한 것과 같았다. 합주실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유럽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 단골 앙코르곡인 ‘라데츠키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새출발을 알리는 곡을 연주하는 학생들의 얼굴에 초등학생 같지 않은 사뭇 진지함이 느껴진다. 또 지휘자

(전진현 선생님)를 향한 집중력과 몰입은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에 푹 빠져있는 어린이의 눈빛과는 다르면서 같았다. 지휘봉이 잠시 내려간 틈을 타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니 서로 발표하고 싶어 손이 번쩍번쩍 올라오고 큰 목소리에 활기가 넘친다. 초등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순수함과 천진함에 잠시 기를 빼앗긴 기분도 들었다. 이들에게 매년 정기공연은 물론이고 현충일 추모행사, 지역축제 등 음악 봉사도 꾸준히 실천한다는 자랑도 들었다.

최선이 최고가 되는 하모니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만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것이다.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나 교과서다. “저희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두 시간 정도는 꼭! 연습을 한다는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는 아침 일찍 등교해서 하루를 깨우는 오케스트라 워밍업 연습을 하고, 점심시간이나 방과후를 활용하여 남은 연습 시간을 채운다고 한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연습 시간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학부모님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존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연습한 결과를 선보이는 무대를 즐기기에 늘 최선을 다하는 연습은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설명도 보탬다. 또 지금은 오케스트라 동아리 학부모회가 조직적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학생오케스트라가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 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고 재미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지휘자 선생님은 악곡을 설명할 때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고 음악적 표현은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음악의 세계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전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교육의 총체

지휘자인 전진현 선생님은 지난 2008년부터 윈드오케스트라의 강자로 불린 구미형일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역임한 후 2015년부터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근무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담당하는 초등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음악 공부도 해오며 프로수준의 지휘력도 갖췄다. 오케스트라 지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 전 교사는 “교사로서 오케스트라 지도는 너무 매력적”이라며 “아이들이 성장하

는 모습을 매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2014년 하반기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로 지정되었지만, 운영할 교사가 없던 시기에 스스로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자원했다던 선생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음악에 대한 기초조차 없던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70명 중 빠질 수 없는 한 명으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진심 매력적이면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보면 학생오케스트라 동아리 안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총체가 응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협업능력과 소통능력, 그리고 타인의 음을 듣는 배려심, 고된 연습 속에서 얻는 집중력과 몰입감, 그리고 무대 위에서 박수받으며 얻는 자존감과 성취 경험, 이것이 한 교사의 인생을 학생오케스트라에 바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학생오케스트라의 미래

교장 선생님과 아이들이 바라는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미래는 “학교 안에 오케스트라가 잘 스며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비단 왕산초등학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유지되고 더 발전되는 학생오케스트라, 특수한 동아리가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의 동아리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 그것이 학생오케스트라의 앞으로의 방향성일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영재학급이나 개인의 진로교육과 연계된다면 더 없이 교육적일 수 있다. 또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해서도 오케스트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⑦



악장
Violin

이윤서(6학년) 학생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전체 대상을 받았을 때 펄펄 올랐다. 그동안 힘들게 연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경험하지 못한 성취감에 감동을 받았다. 악장으로서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늘 모범이 되려 노력했고,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했다. 단원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을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결과가 있어서 행복하다. 올해는 정들었던 구미왕산초 오케스트라를 졸업하고 경북 유일의 음악 중점학교인 광평중학교로 진학을 한다. 언제 어디서나 음악이 나와 함께 하면 좋겠다!



Mini Interview



Clarinet

공은완(6학년) 학생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멈추고 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음악으로 호흡하고 소통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힘들어도 참고 잘 이겨내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배웠다. 졸업할 때가 되니 대회를 앞두고 열린 캠프에서 10시간 연습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무언가를 몰입해서 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나도 오케스트라를 계속하고 싶어 음악 중점학교로 진학한다.



부악장
Flute

류혜인(6학년) 학생

오케스트라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처음 오디션을 보고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졸업하는 현재까지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언제나 연습은 힘들었지만, 공연과 대회 출전을 통해 얻는 경험은 나를 한 단계 성장하게 해준다. 또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하다. 혼자서 하는 음악이 아니고 함께 협동심을 발휘해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다. 윤서와 함께 음악 중점학교로 진학하는데 오케스트라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



Violin

최준서(2학년) 학생

오케스트라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다. 바이올린 연주가 어렵고 힘든데, 그럴 때마다 대회에서 항상 1등을 하는 형, 누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을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알았다. 곧 왕산오케스트라 1년을 마무리하는 시상식인 ‘왕오대상’이 열린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된다.

에듀피플

송주현 강원 소양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에게는 자발성 교육, 학부모에게는 교육멘토

글·사진 | 편집실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의 저자 송주현 교사는 정년을 7년여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1학년 담임을 맡았었다.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순수한 1학년 아이들과 그들의 눈높이에서 눈 맞추며 놀이도 하고, 수업도 하는 친구 같은 선생님. 지난 1월 25일, 강원도 춘천 소양초교에서 송주현 교사를 만났다. (송주현 선생님은 3월 1일자로

만전초등학교로 전근하였음)

방학을 맞아 텅 빈 1학년 교실. ‘마치 장작불 위 팔죽 술단지처럼 끓는 듯 한다’는 아이들의 재잘거림 대신, 따사로운 늦겨울의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난 1월 25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소양초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의 저자인 송주현 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 올해로 교직 34년째를 맞이한 송 교사는 인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2년 전, 고향인 이곳 강원도로 옮겨왔다. 새로 부임했던 학교에서 교직 이후 처음 1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서 기록한 교실 이야기가 바로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였다. 송 교사는 또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블로그와 밴드에 기록하면서 전국의 학부모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해 오고 있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교육상담 멘토가 되어 2018년에는 <초등학교 학부모 상담기록부>를 출간한 바 있다.

“아이들 성장의 그 위대함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1학년 담임을 해 보면, 아직 사회화를 거치지 않은 아이들이 보여주는 인간 본성의 모습이나 원시성을 발견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학교생활 내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순수함을 간직한, 꾸밈없는 아이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재미도 크고요. 강원도로 오면서 우연히 1학년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학년을 담임할 때와는 다른 인상적인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이의 배변 활동을 손수 도와주는가 하면, 현장체험학습 길에서는 차멀미하는 아이의 토사물을 손으로 받아낸 적도 있었고요.” 송 교사는 몇 해 전, 한 인터뷰에서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를 책으로 펴낸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 얼마나 애쓰면서 크고 있는지, 인간 성장의 위대함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전한 바 있다. 늘 뜨겁게 끓어오르는 듯 하다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송 교사는 그것이야말



로 바로 그 시기의 아이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힘이라고 믿게 되었다.

“시골 학교 학부모님들은 농사일 때문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부터 무척 바빠집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도 학교를 찾을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환경의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게 네이버 밴드였어요. 매일 수업시간 활동은 물론 쉬는 시간까지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을 수집 장썩 사진을 찍어 밴드에 올리기 시작했지요. 또 제가 운영해 오던 네이버 블로그에도 일부 공개하기도 했고요.”

첫 번째 책인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가 학부모들 사이에 화제가 되면서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블로그를 구독하게 되었고, 그에게 교육상담을 의뢰하는 구독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송 교사는 “현재 8,500여 명의 학부모가 꾸준히 방문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만큼 남다른 책임감과 보람도 느끼고 있다.”라고도 했다.

“엄마도 자녀로부터 독립하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송 교사의 고향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의 태기산 자락. 1978년 초등학교 5학년 때 비로소 처음 전기

가 들어온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서울로 이사 온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마침내 집에 컬러TV가 생기고, 오후 4시가 되면 TV 앞에서 만화영화를 시청해야 하는데, 풀을 베기 위해 들로 나가야 했다.”라면서 송 교사는 어린 시절의 추억담을 떠올리기도 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처럼, 교사와 학교·학부모의 양육자로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요즘, 송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늘 빼놓지 않는 당부가 있다.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라는 것.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욕심으로 인해 한 아이의 ‘현재’가 무너지고, 힘겨움을 토로할 때도 있노라고 송 교사는 전한다.

“아이의 습성은 가정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욕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균형감 있게 잘 키우려면 학부모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요. 상담하다 보면, 자기 확신이 강한 엄마들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실 때가 있곤 합니다. 일례로 책에서도 소개된, ‘우리 아이가 특목중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그에 맞는 각별한 관리를 요구하는’ 사례에서처럼요. 그럴 때면, 저는 모쪼록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학부모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학교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지 사실대로 통보하곤 한다. 예를 들면, ‘○○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요.’라고 말이다. 송 교사가 전국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하는 자녀교육과 관련한 요청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학부모, 특히 엄마들도 자녀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해 두시라는 것. 두 번째는 아이의 삶은 부모의 삶과는 별개라는 것, 부모가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올바른 자녀교육을 향한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송 교사는 특히 자폐가 있는 자녀를 둔 엄마에게는 아이가 등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곤 한단다. 더욱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적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33년의 교직 노하우와 두 자녀를 키우면서 겪은 경험들을 최대한 녹여내 다방면으로 돕는다. 교직 첫 부임 때 만난 학부모들은 어느덧 70대에 접어들었지만, 송 교사는 여전히 소식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1학년 1반 교실’에서 만나는 ‘자발성’ 교육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은 ‘공부 반, 놀이 반’이기도 해요. 제가 갓 입학한 1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는 교육 활동의 목표는 바로 ‘자발성’입니다. 학교에 오기 전까지 부모님에 의존하며 타율적으로 살아온 아이들은 놀이할 때도 먼저 줄부터 서려고 해요. 저는 수업시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혹은 친구에게 스스로 먼저 말을 걸고, 질문하고, 논쟁하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저도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의 한 구성원이 되어 함께 참여합니다.”

다소 두서없고 엉뚱하기 마련인 1학년 교실의 질문하고, 논쟁하는 수업과 놀이가 3월 내내 진행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자발성은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게 송 교사의 설명이다. 이때 또래의 리더도 탄생하게 되고, 다음 놀이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리더로 부상하기도 한다. 친구와의 논쟁에서는 승부욕도 생기고, 지식 충족에 대한 아이들의 욕구도 채워진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상황극 속의 송 교사는 때로 어리숙함을 연기하기도 하고, 아이들보다 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 얼마나 애쓰면서 크고 있는지,
인간 성장의 위대함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

약한 존재가 되어 엄살을 피울 때도 있다. 선생님도 아이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놓이도록 연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착하고, 정의로운 1학년 아이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곤경에 빠진 선생님’을 도울 묘책을 찾으려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으곤 한다.

“1학년의 경우, 다른 반과 달리 저는 받아쓰기를 매일 진행합니다. 문제 출제도 아이들이 직접 하게 하는데, 이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는 문제를 다른 친구가 대신 출제하게 해요. 그러면 문제를 대신해주는 아이는 친구의 말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곤 합니다. 또 교실에서 아이들의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잘잘못을 가리는 ‘판사 역할’은 어른인 제가 나서기보다는 주변의 친구들이 판단하여 잘잘못을 가리게 합니다.”

받아쓰기 시간, 글을 읽을 줄 몰라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은 송 교사의 몫이다. “괜찮아, 선생님도 2학년 때까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도 2~3학년 올라가면 다 잘 읽게 될 거야.”라고.

송 교사는 2년 전, ‘초등 교사의 정체성 수업 일지’- <착한 아이 버리기>를 펴냈다. 이 책에서 다룬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아이들이 키우는 아이들’. 1학년 교실 속 아이들의 자발성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사례들을 담고 있다. 교사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실행하려는 마음을 교사는 살짝 건드려 줄 뿐이다. 이로써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것이다. 송 교사는 “‘듬직하다, 착하다, 속 깊다’ 등과 같은 속성의 말들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할 때 ‘건강한 정체성’으로 체화될 수 있다.” 라고 강조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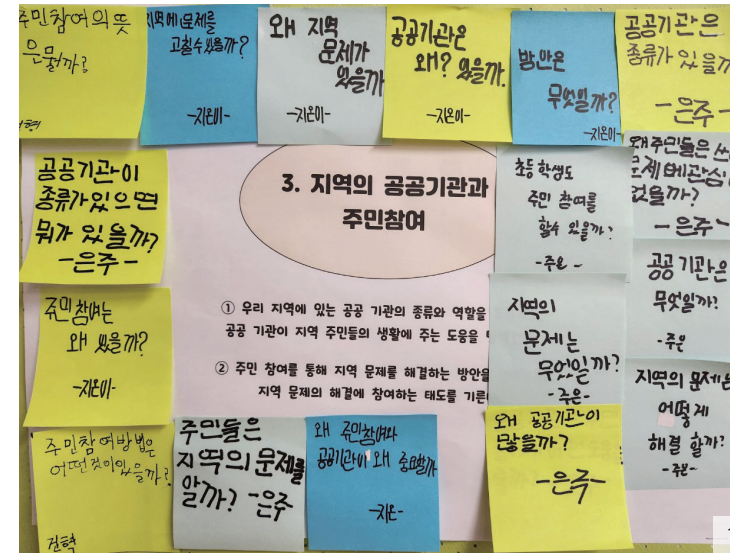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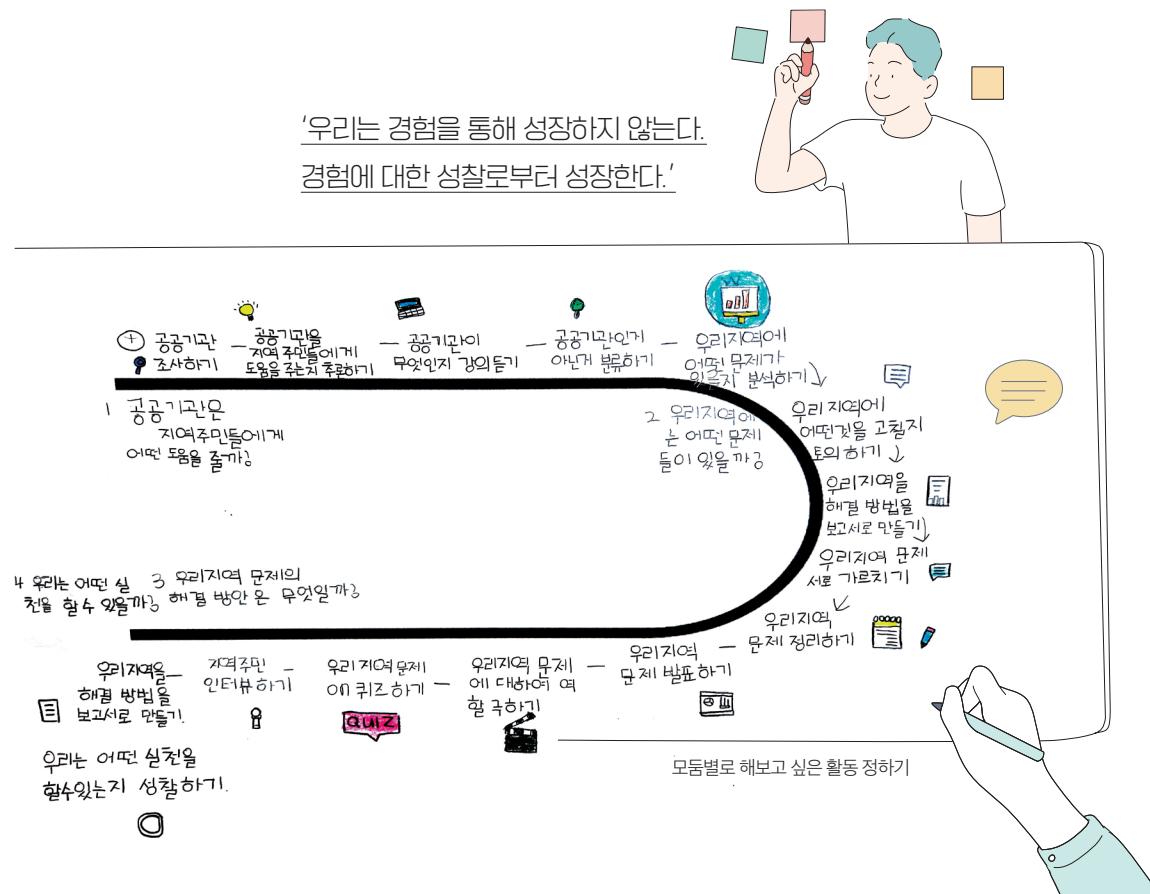
교실혁명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 주도성 높이기

글·사진 | 홍준성 남대구초등학교 교사

OECD 2030 학습나침반의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과 더불어 교실 수업의 주된 변화는 ‘학습자의 주도성’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자의 주도성이 발현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 정의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이 배움의 주체자로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찰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수업을 뜻한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배움을 이끌어나가는 경험은 삶으로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온전한 의미의 주도성을 교실 수업에서 다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가 배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가 끊임없는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교실환경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든 질문
- 2 프로젝트의 핵심개념 선정하기

2 프로젝트의 핵심개념 선정하기

배움을 이끄는 힘,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깊이 있는 학습’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학습자의 삶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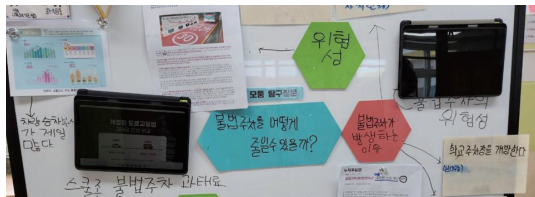
다양한 교과를 융합하여 여러 가지 역량이 함양되도록 하는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이 그 예시 중 하나이다. 프로젝트 학습의 성공 열쇠 중 하나는 바로 이 프로젝트 계획을 학습자와 함께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성취기준 분석, 핵심질문과 핵심개념 추출, 학습 활동의 계획, 평가 방법 선정 등 모든 부분을 학생들과 함께 계획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기 초 ‘질문을 만드는 법’, ‘생각을 나누는 법’, ‘배움을 정리하는 법’ 등 다양한 학습 역량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했다. 한 프로젝트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 데에도 약 2~3차시 정도가 소요된다. 교사가 제시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세워진 프로젝트는 학습자를 몰입하게 하고 배움에 대한 흥미와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삶 속 문제를 해결하다

‘선생님, 우리 등굣길에는 왜 인도가 없어요?’ 이 질문은 지난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실천한 ‘함께 바뀔요! 학교 가는 길’ 프로젝트의 계기가 되었다. 좁은 골목길들 사이에 위치한 학교, 등하굣길 안전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었다. ‘주민참여’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답사, 설문,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조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홍보하고 실천하기 위해 뉴스를 제작하고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제안해보았다. 여러 교과를 융합하여 실천한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본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은 ‘주민참여’라는 개념을 체득하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결과(위)와 뉴스 제작하기



개념과 개념을 잇다, 연결단어

하나의 프로젝트 학습 속에는 다양한 교과의 개념들이 존재한다.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 새로운 상황에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준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고, 교사는 개념의 이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개념학습, 탐구학습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개념을 습득한다. 이때 학습한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직접 표현해보는 과정을 통해 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연결단어이다. 연결단어는 ‘포함한다’ ‘형성한다’ ‘요구된다’ 등 20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개념 게시판에 늘 게시해두고 활용하도록 했다. 물론, 단어는 교사가 학년과 교과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단어를 활용하여 아이들은 배운 개념을 단원의 개념을 연결단어와 조합하여 자기 생각을 담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때 한 개의 개념을 표현해도 되고 두 개 이상의 개념을 연결하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주민참여**’는 지역의 발전을 **이끈다**’
-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도록 **만든다**’
- ‘우리는 **역사적 인물**의 삶을 통해 배울 점을 **얻는다**’
-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



연결단어를 활용한 개념표현과 공유



성찰에 관한 생각 공유를 위한 대화 스틱(성찰 큐브)

성찰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 않는다. 경험에 대한 성찰로부터 성장한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가 한 말이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결국 경험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험에 대한 성찰(재구성)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도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빼놓지 않았듯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에서 ‘성찰’은 꼭 필요한 과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성찰할 수 있을까? 한 차시의 수업을 통해서도 성찰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의 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도 성찰할

배움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변화 수업을 통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삶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인지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학습자는 느낀 바를 분명히 하고 성찰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 주도의 수업은 학생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수업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도성이 잘 발현된 수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사의 면밀한 준비가 더 요구된다. 그만큼 학생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의논하며 끊임없이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로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다가 한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어느 날은 프로젝트 학습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목표에 다다른 동안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법, 타인과 소통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법 등 교과 역량 외에도 스스로 배움을 이끌어갈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주도성이 커지는 교실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성장하는 교실이 되기를 바란다. ㉠

진로직업인

문화재 보존 및 복원 분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이상옥 교수

손상된 문화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글·사진 | 편집실

문화재보존원은 궁궐, 사찰,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품 등과 같은 문화재의 파손 부위를 복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문화재의 원형을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이상옥 교수로부터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첫째, 과학지식과 응용한 기술로 제작기술과 역사를 규명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 보존 방법과 이론을 연구한다. 둘째, 손상된 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다양한 소재의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전통재료 및 제작기법 등을 규명하고, 고고학 자료를 관찰·분석한 후 현상을 해석한다.’ 이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7개 학과 중 ‘문화재보존과학과’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 글귀다. 지난 1월 31일 오후, 이곳 한국전통문화대학교 G관 1층에 있는 ‘보존과학연구소’에서 이 학과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다. 앞서 기술한 학과 안내에서처럼, 이들은 바로 훗날 ‘문화재보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다. 이날은 최근 경북에서 발굴 출토되었다는 유물들의 보존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연구실에는 학생들의 지도를 맡은 문화재보존과학과 이상옥 교수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교수는 문화재 보존·복원 전공으로 강의와 함께 문화재 현장을 지켜온 지 올해로 13년째를 맞는다. 다음은 이상옥 교수와 나눈 문화재 보존 및 복원 분야에 대한 일문일답.

하나, 현재까지 참여한 문화재 보존·복원 사업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2011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출토된 금속유물 보존처리를 시작으로 부여 무량사 지장보살 복장유물 조사 등 현재까지 50여 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승례문 화재 당시의 복원용 기와 연구, 경기도 남한산성 여장(女牆) 보존 관리방안 연구(1~3차)도 대표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4년 전, 국보 제285호인 울산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에 필요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지표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사업에도 참여했다. 물에 잠기기 전과 후, 반구대암각화 표면 훼손과 상태변화의

정량적 지표를 만드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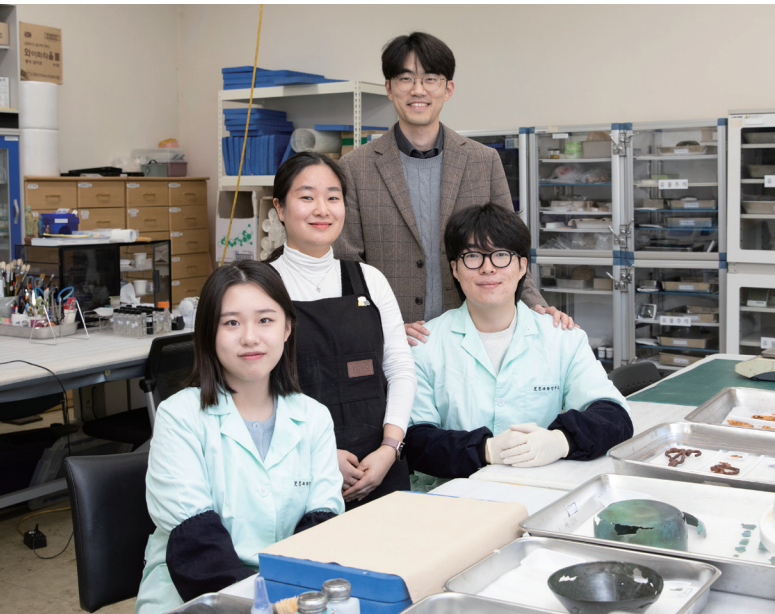
둘,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남한산성 여장 보존 관리방안 연구’가 특히 눈에 띄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업의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14년 남한산성이 우리나라의 11번째 세계유산에 등재된 시기와 맞물려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연구 중 하나다.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인 여장의 보존 관리방안으로서 복원재료인 석회에 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게 된 계기였다. 특히 이 조선 후기 석회 제작공법 연구가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기도 하였다.

석회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됐던 전통적인 건축재료로서 담장을 쌓거나 기와를 여밀 때, 벽화를 그릴 때 바탕면을 조성하는 용도로도 쓰여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통기법들이 보존되지 못하고 단절된 시기기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차례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에는 석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남한산성이 수백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공법상의 기법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문화재보존과학자로서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연구결과 조선시대 후기에는 석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독창적인 기법이 도입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료의 성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이나 기법까지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조사를 통해, 현대기법을 적용하여 복원된 석회 담장은 동파 등 1년을 버티지 못하였고, 조선시대 후기 담장은 30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셋, 문화재 보존·복원 분야를 진로로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고교 시절, 진로를 결정하면서 특색 있는 문화재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문화재보존과학과라는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갖추지 못하였을 때다. 대학 진학 이후부터 문화유산 보존과학이라는 학문에 더욱 관심이 생기면서 3학년 때부터 대학 내 연구소인 보존과학연구소의 일원이 되었다. 이때부터 문화재 보존조사 현장을 찾아다니고 실무를 경험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매력에 깊게 빠져들게 된 것 같다.

문화재 보존은 100년, 그리고 천년이 지나더라도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으로 존재할 것이다.

넷, 통상적으로 문화재보존원 업무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

기관에 따라 문화재보존원 업무의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현장에서 발굴되어 온, 흙이 묻어 있는 유물 그대로 가접합 등 보존처리를 하는 1차 문화재보존원의 역할이 있다. 발굴된 날것 그대로의 유물을 만날 수 있는 단계다. 국가에 귀속되어 박물관으로 옮겨지면, 보존과학실에서 또 다른 보존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보존과학학예연구사에 의해 보존처리가 진행되는 절차도 있다.

다섯, 문화재 보존·복원 업무 수행을 통해 얻는 보람, 또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업무 담당자들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고, 전통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자긍심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 일이야말로 국가에 기여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크다. 문화재 보존업무에 따르는 애로사항, 힘든 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인한다. 문화재 보존 및 복원사업이 국가 주도 영역이라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추진의 변동성이 크게 영향받는다. 또 업무에는 고도

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진입장벽이 높은, 접근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문화재 보존·복원 영역의 직업인으로서의 미래 전망은?

참고로 유럽권에서는 문화재보존과학이 오래전부터 유망직종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런 만큼 이 직업군의 업무 만족도가 높고, 보수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이 분야의 직업 전망은 ‘매우 좋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주곤 한다. 문화재보존원 업무는 AI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고, 불균질하고 비정형적이고 희소성을 지닌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게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발굴되는 문화유산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박물관 및 문화재 수장고가 확대되면서 보존 및 복원인력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박물관 등의 부속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운영되기도 한다. 또 문화재 보존업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3D 스캐닝,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DB 구축 및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은 100년, 그리고 천년이 지나더라도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으로 존재할 것이다.

일곱,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화재보존과 학자로서 향후 계획은?

초빙 교원으로 강의를 맡다가, 전임으로 임용된 지 올해로 2년째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관심이 자연스럽게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 간다. 먼저 문화재보존과학과 학생들이 적성을 찾아가고, 그에 관

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더불어 전공하고 싶은 전문 분야를 찾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이집트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곧 ODA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집트의 세계유산인 룩소르 신전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가 해외 원조 수혜국이었던, 이제 우리 문화재 전문인력이 해외 기술원조에 동참하게 되었다. 문화유산 복원에 관한 우리의 선진 기술력 지원 등 타 학과와도 연계하는 이집트 ODA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②

TIP BOX

문화재보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문화재 보존·복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속, 목재, 석재, 섬유, 지류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영역인 만큼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역사와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지식과 관심은 기본 요소다. 과학기술이 문화재 보존·복원 업무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과학적 지식도 매우 중요해졌다. 일례로 약물 보존처리 업무 등을 위해서는 화학적 지식은 필수다. 또 석조물, 공예품 등의 복원을 위해서는 손기술은 물론 섬세함도 매우 중요하다. 문화재보존원으로 일하려면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유리하다. 문화재 보존 전문기업에서 총괄책임은 보통 ‘문화재수리기술자’ 면허 취득자에게 맡겨진다. 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보존과학학예사),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센터 등의 채용조건에는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 학위자가 대상인 곳이 많다.

해외의 대입제도와 우리 교육에의 시사점

글 | 지은림 경희대학교 교수(한국교육학회 부회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입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일찍부터 대입제도 혁신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중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가 새로운 대입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대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이 국가들의 대입제도 개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해외 국가들의 대입제도 개혁 배경

중국은 2014년부터 대입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가오카오(高考) 위주의 입시로 인해 고교 교육이 가오카오 준비과정과 같이 되면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어렵게 되었다. 고교 교육은 입시과목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지식 위주의 암기 학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고차적 사고역량이 향상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로 대입제도가 가오카오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식 이외의 다른 소양 및 잠재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인적 교육이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셋째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수민족, 각종 시험에서 받은 상 등에 따라 부여되는 가산점이 조작되거나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불공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3년 「교육재생실행회의」에서 교육개혁을 논의하면서 대입제도 개혁을 시작하였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고교 교육 개혁, 대학 교육개혁, 대학입시 개혁을 연계하여 학력 3요소를 육성·평가하려는 ‘고대접속개혁(高大接続改革)’을 추진하였는데, 대학입시는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대입제도 개혁은 2018년에 발표되었는데, 바칼로레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배경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바칼로레아 시험의 변별력과 신뢰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1936년에 2.7%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 91.1%까지 증가했다.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합격률이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둘째, 바칼로레아 시험의 과목 수가 너무 많고 응시 시기가 고교 3학년 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시험 부담

이 과다하고 고교 교육의 충실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바칼로레아 체제가 고교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연계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대학입시에서 계열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수험생이 대학 희망계열과 관계없이 그랑제콜 입학에 유리한 과학계열을 선택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사례도 발생했다.



중국, 일본, 프랑스 대입제도 개혁의 주요 특징

중국 대입제도 개혁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는 기존의 까오카오가 ‘3(필수과목)+X(선택과목)’로 구성되었던 것을 ‘3(필수과목: 까오카오)+3(선택과목: 학업수준시험)’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원자가 까오카오 점수와 함께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실시되는 학업수준시험의 점수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둘째, 선택과목으로 문·이과 통합된 과목 중에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3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융합교육의 취지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 셋째, 대학이 학생 선발에서 ‘종합소양평가’를 참고하여 학업 점수뿐만 아니라, 인성, 건강, 사회실천 등의 전인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자주선발전형’을 확대하여 대학별로 특기와 창의적 자질이 잠재해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전형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소수민족, 특별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부여하던 가산점을 축소하는 한편, 입시의 형평성 확대를 위해 소수민족과 낙후지역 학생들을 위한 가산점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별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입학정원 할당을 실시하게 되었다.

일본 대입제도 개혁의 주요 특징은 새로운 국가시험으로 대학입학공통테스트를 새롭게 도입한 것인데, 이 시험에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요구

되는 능력, 의욕, 적성 등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은 이 시험에서 사용할 교과 및 과목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적절한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의 개성화·다양화가 가능해졌으며, 가장 주요한 변화는 선택형 문항을 서술형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프랑스 대입제도 개혁은 바칼로레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칼로레아 개혁의 기본 방향은 고교 교육과정을 학생 개개인의 적성 개발과 대학교육 준비과정이 되도록 설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바칼로레아가 수험생인 고교생들에게 주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 과목이나 일정을 조정하였다. 이 외에 대입지원시스템을 개혁하였는데, 기존의 ‘입학자격취득 후 진학등록제도(APB)’를 파르크루십(Parcoursup)으로 전환하였다. APB에서는 지원자가 희망 대학을 사전 등록하고 희망 대학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 우선 추천하였는데, 이러한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고 지원자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국가 공통 대입지원 사이트인 파르크루십을 개설하여 지원자가 파르크루십 사이트에 이력서, 추천서, 성적표, 입학계획서 등을 등록하고, 고교 3학년 5월 초에 대학이 이 자료들을 근거로 1차 입학 후보자들을 선정하고, 바칼로레아 점수가 나온 후에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대입제도와 비교 및 시사점

해외 대입제도의 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미래형 대입제도를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는 대입제도가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고차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 수능도 지식암기 위주의 시험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험 내용이나 문항 유형 등을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 사례를 보면 대학입시에서 선택과목을 결정하는데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수능에서도 융합교육의 취지에 맞게 선택과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중국, 일본, 프랑스 사례를 보면 대학입시 선발 방식이 점점 다원화되고 있으며 지원자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및 사회적 특성들도 평가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필식 검사인 수능이나 과목 시험점수 위주의 내신 평가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넷째, 해외 사례들은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시험 부담을 줄이고 고교-대학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고자 선택과목은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실시되는 학업수준시험을 활용하도록 했으며, 중국과 프랑스는 고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은 지원자가 고교에서 이수한 선택과목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방안을 개선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및 수준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일치



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 달성을 위해서도 대입제도 개혁은 이를 반영하여 대학이 지원자의 고교 과목 선택 자료들을 연계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해외 국가들의 대입제도 개혁 사례가 보여준 문제점들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입제도 개혁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향후 수능에 서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이 서술형 문항 도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점검하여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양질의 서술형 문항 출제, 신뢰하는 채점을 위한 채점자 훈련과 모니터링 체제, 방대한 양의 채점을 위한 인프라 등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고교에서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과목 이수를 확대하고 대학전공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생에게 대학 전공 및 진로와 연계한 과목 안내 및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점검하여 우리나라 대입제도 개혁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미래 세대를 위한 서·논술형 평가의 실태 및 과제

글 | 송진웅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서울대 교원양성혁신센터 센터장)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은 교육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과 치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문제는 그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안목이 필수적인 입시제도의 변화 중에서도 여전히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 중 하나는 ‘평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다. 평가가 바뀌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교수학습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서·논술형 평가의 문항 개발, 채점기준표 개발, 교사 간 상호채점, 효율적인 피드백, 출제-채점-피드백 소요 시간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 내에서, 교육청 단위로,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교사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AI 혁명·인구절벽 사회의 창의성과 미래 역량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거대 사회 변동이 있다. 하나는 ‘AI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절벽’이다. AI 혁명은 글로벌 차원의 사회변화로 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학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다. 스마트폰, 지식검색, 생성형 AI 등을 통해 그 엄청난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절감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인간의 중재 없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제1차 학습혁명’이라 부를만하다.

한편, 2022년 0.78명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에는 0.70명이 예상되고 있다. 인구 위기를 넘어 인구절벽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세계사적으로도 전대미문의 출산율이며,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인적자원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보다 더 암울한 미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지만,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다. AI 혁명과 인구절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리키는 교육의 혁신 방향은 무엇일까? 인터넷만 치면 나오는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교육과 학습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미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목표는 ‘창의성’과 ‘미래역량’을 지향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교육과정의 목표가 실제로 구현되지 못하고, 그 정점에는 우리의 평가 방식이 있다는 점이다. 모든 문

제는 주어지고 또한 주어진 5개 내외의 선택지에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도 미래역량도 길러질 수 없다.

선다형 상대평가로 이뤄진 수능 시험

먼저, 대학입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수능 시험을 보자.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제2외국어의 모든 과목의 평가는 5지 선다형 상대평가로 단 하루 만에 진행된다.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정답 하나와 절대로 맞을 수 없는 오답 4개가 주어지며, 평균 2분의 풀이 시간만 주어진다. 최근 국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B) 외부평가(EA)와 비교해 보자. 예컨대 물리학의 경우, 수능에서 물리학I 및 물리학II는 과학탐구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각각 5지 선다형 객관식 총 20개 문항을 30분 동안 풀어야 하며 만점은 50점이다. 그리고 그 성적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상대평가의 형태로만 주어진다. 즉, 다른 수험생 성적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반면, IB의 물리학은 표준 수준(Standard Level)과 고급 수준(Higher Level) 두 가지가 주어지며, 총 3차례(3일)에 걸쳐 시험을 치르게 된다. 1차 시험은 4지 선다형 문제로, 2차 및 3차 시험은 단답형 및 서술형이 혼합되어 주어진다. 각 시험은 60분, 135분, 75분으로 총 270분이 주어지며, 문항 수 또한 각 시험에 40문항, 11문항, 6문항으로 총 57문항에 이른다. 특히, 2차 및 3차 시험의 경우, 계산기의 사용과 물리학 공식/기호를 담은 자료집(Data Booklet)도 주어진다.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엄격한 채점기준표

(Rubric)에 따른 절대평가로 이뤄진다.¹⁾

자격고사의 성격을 지닌 미국의 SAT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수능과 같은 선택형 상대평가로 대학입시의 핵심이 이루어지는 선진국은 없다. 이러한 수능 시험 방식은 고교 학습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수능 시험과 IB 외부평가가 각각 학교에서 어떤 성격의 학습을 유도할 것인가는 너무도 명확하다.

평가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학교의 내신평가는 어떠한가?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교 3년을 전쟁처럼 보낸다. 특히 내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학년 때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좌절의 시간이 남아 있게 된다. 2~3학년 내내 학교 수업은 포기한 채 수능시험 준비에만 집중하거나 아예 학교를 자퇴하기도 한다.²⁾ 또한 내신평가는 학교 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경쟁 대상자는 우리 반,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다.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친구들보다 얼마나 높은 등급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상대적 상실감은 불가피하고, 창의성과 미래역량의 핵심이 되는 동료들과의 협업과 소통은 요원하다.

최근 수행된 한 연구³⁾에 따르면, 학문 분야에 따른 교과별 차이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일반고에서 실시되는 내신평가의 유형은 평균적으로 선택형 지필고사(43.7%) > 서·논술형 수행평가(22.9%) > 서·논술형 지필평가(15.3%) > 기타 수행평가(16.0%) > 단답형 지필고사(6.4%) 순으로 나타났다. 내신평가의 경우에도 여전히 선택형 지필고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지필평가의 비중은 총 6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 및 초점집단면담(FGI)을 통해 확인된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대표적인 어려움은 채점에 대한 부담감, 채점 기준 설정의 어려움, 채점 및 피드백 제공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 활동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과학과 같이 여러 과목에 걸쳐 학년이 다른 많은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시간의 부족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논술형 평가의 안착을 위한 과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곧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가 학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창의성 및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에 긍정적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준비가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첫째, ‘교수평가(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은 이미 창의성 및 미래역량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수업, 평가, 기록은 여전히 ‘선택형 지필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논술형 중심의 학교 평가가 자리 잡지 못한다면 ‘교수평가 일체화’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렵다.

둘째,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을 획기



적으로 줄이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논술형 평가의 문항 개발, 채점기준표 개발, 교사 간 상호채점, 효율적인 피드백, 출제-채점-피드백 소요 시간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 내에서, 교육청 단위로,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교사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청 단위의 ‘(가칭)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및 교육부 수준의 ‘(가칭)중앙채점센터’ 등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조직들은 서·논술형 평가에서 야기되기 쉬운 평가의 공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민원과 시비에 교사가 개인적 수준에서 노출되고 공격받는 위험을 없애는 데 매우 중요하다.

셋째, 수능 시험을 서·논술형 절대평가 중심으로 서서히 바꾸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이 아무리 이루어지더라도, 수능 시험의 변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서·논술형 평가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어렵다. 하지만, 급속한 수능 체제의 변화는 사교육을 크게 자극할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서·논술형 중심의 수능 체제 도입은 공교육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교육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AI 혁명과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미래세대를 ‘세계 최고’의 창의성과 미래역량의 인재로 길러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소질, 적성, 포부에 따라 저마다의 높은 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 전반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행복한 교육의 전제 조건이기도 할 것이다. 성공적인 서·논술형 평가의 도입과 안착이 이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1) 송진웅 등 (2021). <대입 논술형 수능 체제 설계를 위한 평가 시스템 및 교원 양성 프로그램 기초 연구: IB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혁신센터 정책과제 보고서, 157쪽.

2) <“고등학교 첫 시험 망치면 자퇴”> 늘어나는 고1 자퇴생들. 조선일보 2023년 5월 26일.

3) 송진웅 등 (2022).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서·논술형 기반 평가 및 대학입시 개선방안 연구>.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

대한민국 섬&학교

전남 신안

‘제2의 제주도’를 꿈꾸는 자은도

글·사진 | 최홍길 명예기자



백길 해수욕장

보석같이 아름다운 1004개의 섬이 있는 전남 신안군.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섬을 꼽자면 ‘자은도(慈恩島)’이다. 한 섬에 큼지막한 해수욕장이 무려 아홉 개나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곳까지 포함한다면 셀 수 없다. 게다가 어떤 집의 앞마당에도 작은 해수욕장이 있을 정도이다. ‘제2의 제주도’를 꿈꾸는 자은도의 여행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풍성해진다.



무한의 다리(사진 전남 관광정보센터)



여인송

70여 개의 유인도와 수백 개의 무인도를 포함해 1004개의 섬을 갖고 있기에 전남 신안군은 ‘천사의 섬’으로도 불린다. 백제 멸망 이후 변방, 비주류 계다가 벽지였기에 외지인들의 발길이 뜸할 수밖에 없었던 신안의 섬들. 하지만 최근 ‘천사대교’의 개통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7.2km에 달하는 이 다리를 자가용으로 9분 가까이 달리는 동안 점점이 박힌 섬들과 그 주변의 경관에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 이제 관광객들은 여객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교 건너 10개의 섬 자은도, 암태도, 추포도, 팔금도, 매도, 안좌도, 박지도, 반월도, 자라도, 부소도 등을 볼 수 있다. 그중 요즘 SNS에 자주 오르내리는 가장 핫한 곳을 꼽자면 단연 자은도이다.

청동기 유적인 지석묘가 있기에 자은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천사대교를 거쳐 은암대교를 건너자 ‘역사와 자연관광의 자은’이라는 표지석이 따스하게 다가온다. 글자 그대로 사랑(慈)과 은혜(恩)의 섬으로 느껴진다.

여인송을 아시나요?

구영리는 면 소재지 마을로, 뒤쪽에 두봉산(斗峰山)이 있다. 이곳의 토박이들은 유독 우리말을 즐겨 사용한다. 그래서 두봉산이 아니라 말봉산으로 부른다. 인근 암태도에 승봉산(升峰山)이 있는데, 되봉산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말봉산과 되봉산의 높이 차이는 고작 8m뿐이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산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전세버스를 임대해 이 두 산을 오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자은도는 해수욕장으로 이름난 곳이다. 백길·면전·분계·양산·외기·둔장 등 모래밭 해수욕장이 아홉 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곳은 백길과 분계 해수욕장이다. 깨끗한 바닷물과 깊지 않은 수심으로 유명한 백길 해수욕장은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바다의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최근에 호텔 겸 리조트가 생겨서 인기만점이다. 분계 해수욕장에는 백사장 뒤편으로 우거진 소나무 숲길이 조성돼 있다. 그렇게 넓지는 않으나 깨끗한

모래사장과 해안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송림은 한 폭의 동양화다. 수백 그루의 소나무 가운데 여인이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여인송(女人松)’이 하나 있다. 고기잡이를 하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무사귀환을 빌던 부인은 가장 큰 소나무에 올라 남편을 기다리다 어느 추운 겨울 얼어 죽고 말았는데 돌아온 남편이 부인의 시신을 수습해 그 소나무 아래에 묻어주자, 나무는 거꾸로 선 여인의 자태를 닮은 여인송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여인송 앞에서 기념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 1 뮤지엄파크 안에 있는 세계조개박물관
2 자은초등학교 전경(사진: 자은초등학교)



독살과 무한의 다리

둔장 해변은 가장 길고 넓으며 완만하다. 모래와 빨흙이 섞였는데도 바닥이 단단해 발이 빠지지 않는다. 해변 한쪽에 자리한 동양 최대 규모의 독살은 원시어업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돌을 쌓아 물을 가두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독살은 바다에 친 돌울타리를 말한다. 밀물 때 여기를 넘어 들어왔다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돌담 사이로 물은 빠지지만, 물고기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돌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돌담 한가운데 하수관 같은 관을 묻어 바다로 튀어나온 관 끝에 기다란 그물을 걸어둔다. 여기에 갇힌 물고기들이 이 관으로 몰려들어 그물에 걸리게 되는 손쉬운 어업법이 독살법이다.

독살 바로 위에 ‘무한의 다리’가 개통되었다. 섬과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과 끝없는 발전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명명한 이 다리는 둔장 해변에서 구리도와 할미도 등 두 개의 섬을 잇는 1004m 보행교로, 환상적인 해넘이 장소로 알려지면서 그 멋진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수많은 외지인이 찾고 있다.

다리 주변에는 사월포 포구와 소룡산, 대두리도·소두리도의 무인도, 풍력 바람개비 등이 있어서 이 또한 사진작가들이 애호하는 장소이다. 관광객들은 다리 위를 걸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멋과 맛을 만끽한다. 다리 아래에서 유영하는 크고 작은 물고기를 보며 탄성을 지른다.

불거리 풍성한 뮤지엄파크

한편, 양산 해변 부근에는 ‘세계조개박물관’과 ‘천사섬수석미술관’ 등 불거리가 풍성한 뮤지엄파크가 있다. 조개박물관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각종 조개류 수천 점과 진귀한 조개 공예품이 온갖 화려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반기고, 수석미술관에는 2천여 점의 아름답고 신비한 모양의 수석이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또 미술관 주변에 조성된 수석정원과 드넓게 펼쳐진 양산 해변, 아기자기한 산책길은 가족과 함께 거닐기에 매우 좋다. 지난해 10월 문화의 달 행사 때는 104대의 피아노가 동시에 연주되고, 우리나라 음악계의 거장들이 총출동, 아름다운 선율로 신안의 밤을 수놓았다.

자은도는 땅콩과 대파로 유명하다. 신성리의 모래밭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면 대파가 자라는 모습밖에 안 보인다. 모래땅에서 자라기에 물빠짐이 좋아 생육이 좋고, 따뜻한 기후 탓에 추운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파 관리와 수확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자은초등학교, 자은도 꿈나무가 자란다

2천여 명이 사는 자은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교씩 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4개의 초등학교

가 있었지만, 지금은 학급 구분 없이 4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한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편으로,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중언어말하기 전국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다수다.

자은초는 천연잔디 운동장과 다목적 강당(체육관),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실 등 교내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지역 내 교육,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하지만,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해오고 있다. 사제동행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예술강사 합동수업을 진행하고 신나는 예술여행, 찾아오는 문화예술체험, 도시문화체험 등을 확대하는 한편, 방과후에는 4개 부서의 예술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개발되지 않아서 더 매력적인 자은도. 여인송과 무한의 다리, 뮤지엄파크 그리고 백길 해수욕장만 보더라도 힐링이 무엇인지 깨닫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경관, 생태환경은 이곳 주민들에게 섬이 주는 선물이다. 이곳에서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72

자은도 가는 방법

 **자가용**
목포-압해대교-천사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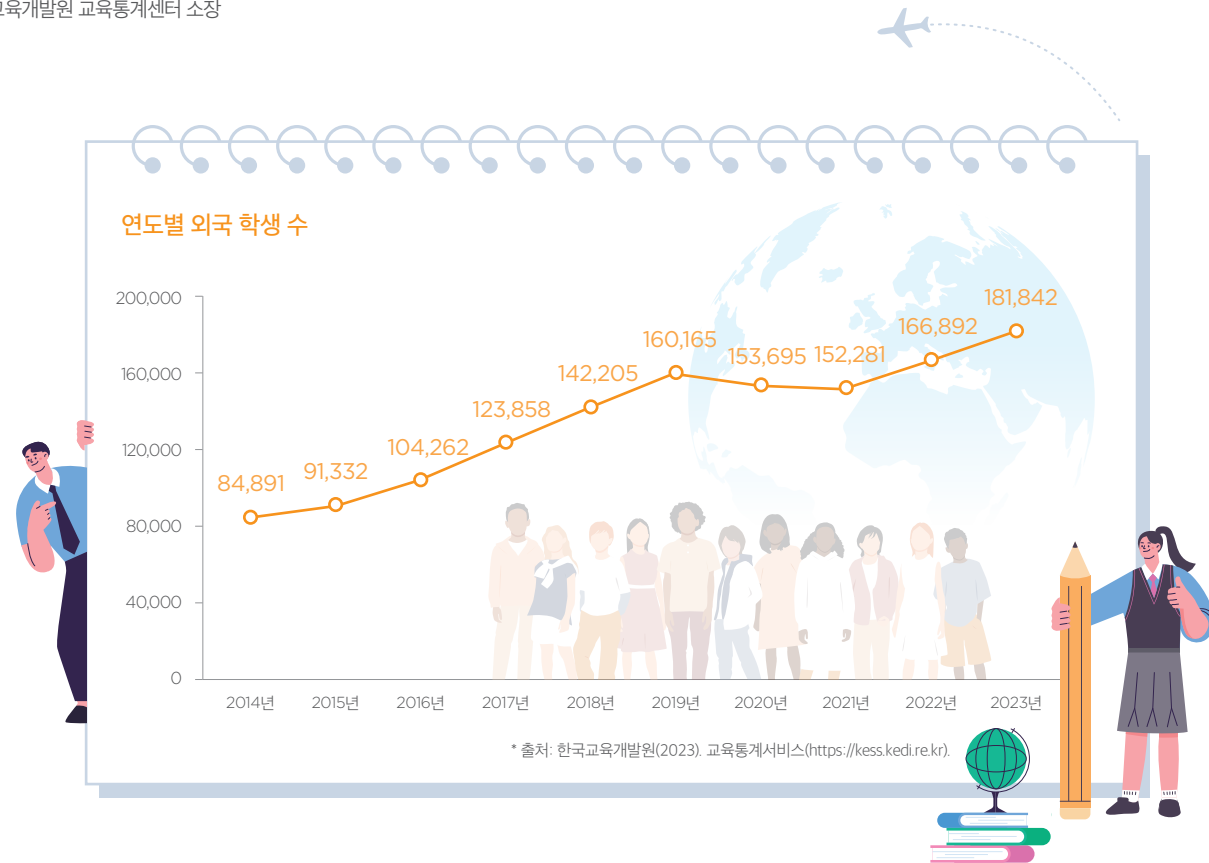
 **여객선**
신안군 증도에서 20분 정도 소요

 **주변 관광지**
암태도 벽화, 소작쟁의기념탑,
팔금도 군영소, 안좌도 김환기 고택, 퍼플섬

도표로 읽는 교육통계

한국에 있는 유학생은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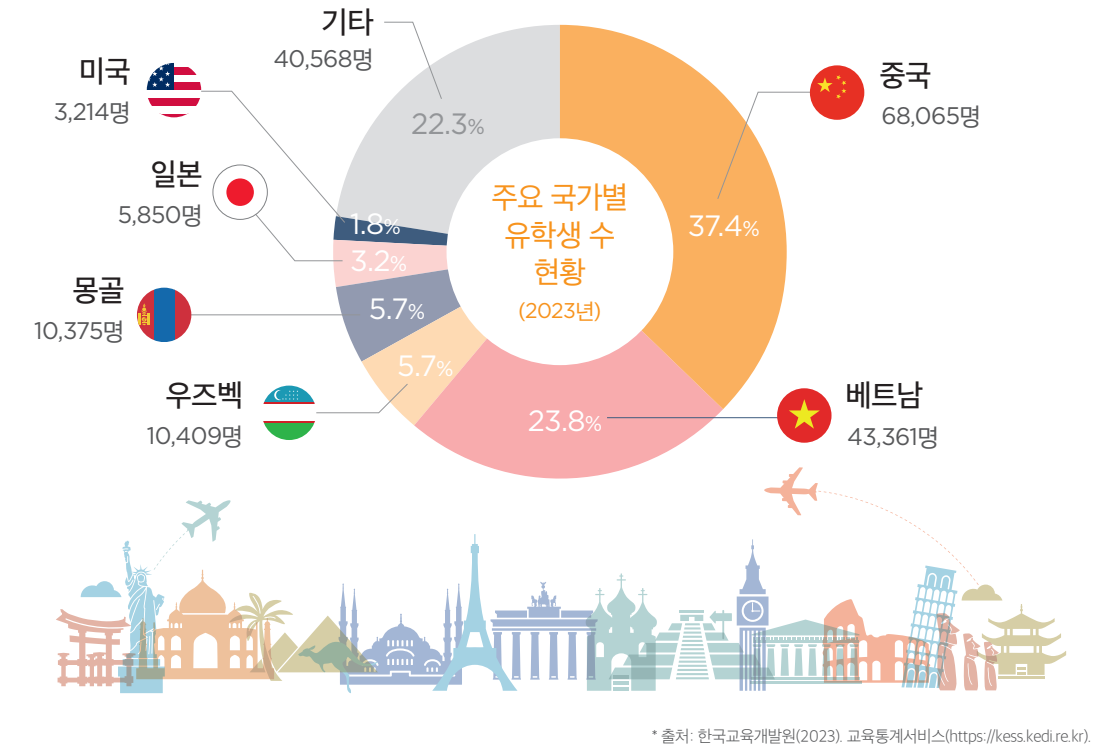
글 | 강성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소장



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 수는 3,042,848명이다. 이들 중 **외국 학생 수**는 **181,842명으로 약 6% 정도**이다. 대략 100명 중 6명꼴인 셈이다. 20년 전에 비해 15배, 10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정부 초빙이나 대학 초청도 있지만 대부분 자비유학생이며, 학위과정으로 129,240명(학사과정 81,087명, 석사과정 30,012명, 박사과정 18,141명)이 대학에 다니고 있고, 어학연수나 교환연수생, 교육과정공동운영생 등 비학위과정도 52,602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많이 오고 있을까? 국가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 37.4%, 베트남 23.8%,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각각 5.7%, 일본 3.2% 순으로 많다. 최근 동향을 보면 학위과정에서는 네팔이 일본을 제치고 5위권 내에 진입하였고, 비학위과정에서는 몽골이 일본을 제치고 3위권 내로 진입하였다.



유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 학과·전공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략 60~70% 정도가 인문사회계열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의 경우 전공 소계열 수준에서 살펴보면 경영학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어·국문학, 언론·방송·매체학, 무역·유통학, 경제학, 영상·예술, 관광학, 교양인문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연극·영화 등을 전공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자동차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광, 식품·조리, 기계, 경영·경제, 가족·사회·복지, 뷰티아트, 인문일반 등을 전공하고 있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들은 대부분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 언어와 무역, 관광, 경제, 영상·예술, IT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을 배우기 위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많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원인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기술적 성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학생들의 지역별 분포는 차이가 있을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71,048명, 경기 30,129명, 부산 11,946명, 대전 10,764명, 충남 9,399명 순으로 서울(39%)이 가장 많다.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에는 각각 5천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로 볼 때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상대적으로 외국 학생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고등교육에 있어서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②

현장 속으로 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글 | 편집실 사진 | 교육부



“좋은 수업이란 교사도 아이들도 함께 배움으로써 성장하는 수업 아닐까요? 사교육과 공교육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공립학교 교사로서 무한한 책무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입시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통해 아이들에게 협력적인 소통 역량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 문제해결 역량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수업연구를 시작했고, 이런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에 만난 대전지족고 박진선 교사는 좋은 수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성장’과 ‘배움’ 그리고 공립학교 교사로서 갖는 ‘책무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느끼는 수업의 무게와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자 하는 깊은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 열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월 18일 코리어나호텔(서울)에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실 수업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주인공인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출품 서류를 간소화하고 입

“교육부도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2024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제도를 개선한 결과,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1,329편이 출품됐다. 시도대회 예선을 통과한 출품작(256편) 중에서 최종 입상작 152편을 선정했고 입상자(185명) 전원에게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이날 입상 교원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상식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발 앞서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실 수업혁신을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2024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로서 교실혁명에 앞장서 달라.”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사들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 준비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5천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수업혁신, 교실혁명에 진심인 선생님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남대구초 홍준성 교사는 4학년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에듀테크를 활용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

여행 책자를 제작하는 등 지난 한 해 활발한 사회과 탐구활동을 해왔다.

홍 교사는 “기존에 알고 있던 에듀테크 외에도 잘 모르는 새로운 에듀테크를 접목하려고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씩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며 “학기 초 아이들이 모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었는데, 발표를 안 하던 아이들이 차츰 발표하고 수업을 궁금해하며 자료를 수집·탐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미래 핵심 역량을 가진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점·선·면 미술프로젝트 수업을 해온 경기 수택고 노지현 교사는 “미술은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수업이며 그림은 자기를 온전히 들어낼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노 교사는 “학교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소외되던 아이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들어낼 수 있도록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다독이는 과정에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었더니 자발성이 발현되더라.”라며 수업을 소개했다.

노 교사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영당이가 들쭉이는 설렘이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②

현장 속으로 ②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교육이 미래다’

글·사진 | 김민환·정수진 명예기자



16개국 302개 글로벌 교육 기업·기관 참여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 교육·에듀테크 전문 박람회로, 올해 21주년을 맞아 지난 1월 17~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었다. 16개국 302개 글로벌 교육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한 이번 교육박람회는 ‘교육이 미래다(The Future is Education)’라는 주제로, 에듀테크 코리아, 조기·초등교육, 평생·자격증·직업교육, 체험존 등의 전시 부스와 교육 관련 콘퍼런스·세미나·워크숍, 부대행사 등이 열려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게임 리터러시 부스에서는 교사 연구회인 초등컴퓨팅교사협회의 연구성과와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연구 및 개발 자료, 온라인 학생 게임창작대회(ALL-PG), 교실 속 게임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 교육 등에 대해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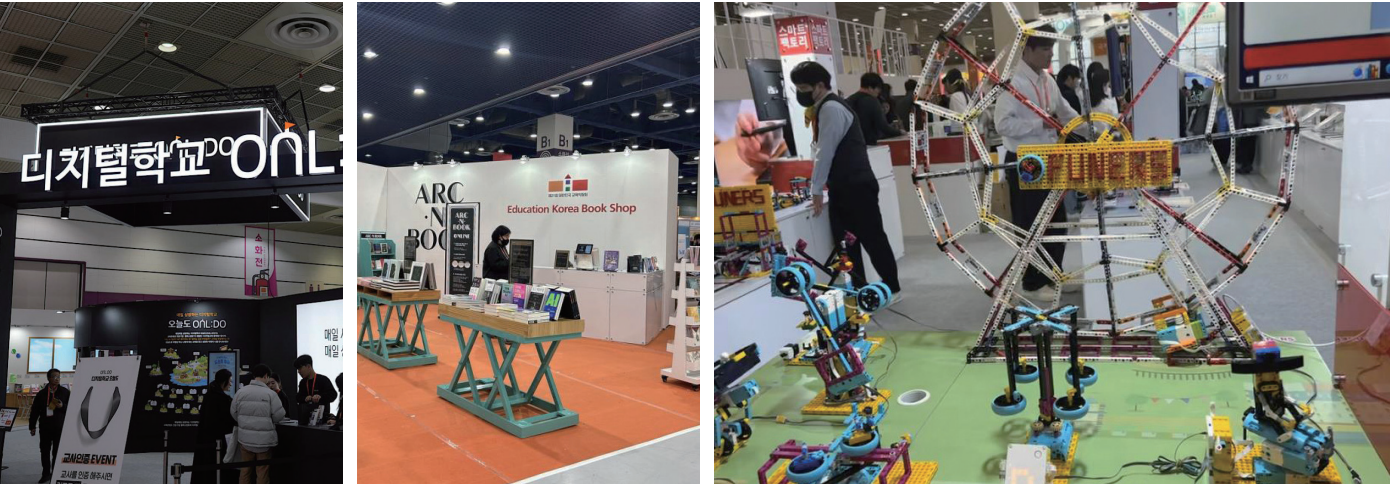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리는 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고민하게 하였다.

구글(Google for Education) 부스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월 17일, 논산 대건고등학교 김용상 교사는 ‘미래학교 프로젝트-스마트 스쿨, 학교 공간혁신, AI 융합교육’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날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미래교육과 디지털 교육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교사는 “대건고 변화에서 주안점은 스마트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AI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연결”이라고 강조하고 스마트교실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EBS 부스에서는 AI펭귄, EBS Math, 위캔버스 등을 만날 수 있었다. ‘AI펭귄’은 교육부와 EBS가 기획하여 개발한 영어 말하기 연습 앱으로 펭수 캐릭터와 함께 단어게임, 듣고 따라 말하기, 대화 나누기, 단어 수집 등의 학습을 체험할 수 있었다. ‘EBS Math’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 사교육비 경감, 학교 수업 활용 등 공교육 지원을 목표로 EBS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만든 무료 수학 사이트이다. 이 부스에서 앱을 설치하고 영상, 웹툰, 게임 등을 체험하는 미션을 진행하였다.

‘위캔버스’는 국내 최초 교육 메타버스 서비스로 이 부스에서는 초등 교과 메타버스 콘텐츠(영어, 소프트웨어, 독도)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1월 17일에는 ‘EBS 왕초보 영어’의 진행자인 마스터유진, 개그맨 이상훈이 직접 EBS 부스를 방문해 ‘왕초보 영어 시청자의 새해 다짐’이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방문한 학생, 학부모가 빈칸에 들어갈 문제를 맞히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가 한자리에

디지털 교육 클러스터 전시 공간에서는 디지털 교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 콘텐츠를 아우르는 캠퍼스멘토의 ‘디지털학교 오늘도’를 전시하였다. 디지털 교육 관련 14개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디지털 교육 클러스터를 결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콘텐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시했는데 챗 GPT 활용 에듀테크, VR 잡월드, AI 글쓰기, 학습코칭 등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에듀테크 기업의 AI 디지털 교과서 체험과 미래의 프로토타입 STEAM 교실도 체험할 수 있었다. AI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도구들을 개발자가 시연하기도 했으며, 그림, 챗GPT를 활용한 챗봇 등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교과 융합적인 요소들을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교육에도 기술을 활용한 시연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 플라스틱, 병 등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종류에 맞는 분리수거 통으로 이동시켜주는 체험이 인상 깊었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블록을 조립하고 움직여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었다. 피지컬 컴퓨팅은 컴퓨터 과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센서, 액추에이터,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과 개념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블록으로 만든 놀이기구 전체를 작동시키고, 방향을 전환하여 이동시키는 체험이 참여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교육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리는 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고민하게 하였다. 이번 교육박람회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와 정보는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혁신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토론과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②

명예기자 리포트 ①

담임교사의 책무

글 | 신동필 명예기자



담임교사의 역할과 노력에 따른 영향력은 매우 큼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기에 학급 담임의 역할을 늘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며 정성을 다하고자 애를 씁니다. 3월을 시작하며 한 학생당 1~2시간에 걸친 섬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점심시간 절반과 모든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함께 합니다. 우선적으로 공부 가장 부족한 학생부터 챙깁니다. 교육활동에서 동기부여에 의미를 둡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시절의 의미를 강조하며 효율적인 생활을 당부하는 긴 조회와 종례를 합니다. 과목별 학습법을 지도하기 위해 관련 책을 통하거나 해당 교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수준에 맞는 적절한 학습법을 제시해 줍니다. 학습 플래너 관리, 학급 과목 부장을 활용한 학습 지원, 대학 재학 중인 제자들의 멘토 활동도 함께 합니다. 정기 고사 성적이 400등에서 200등, 100등에서 50등, 20등에서 10등 정도로 성적 향상이 두드러진 학생들을 크게 칭찬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필자가 집필한 책에 격려와 칭찬의 글을 담아 문화상품권과 함께 선물하는데, 그 자리에는 학급 구성원 모두의 아낌없는 박수와 축하가 함께합니다. 담임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만들어가는 수업은 가장 기본

입니다. 학습 능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문형 방과후 수업을 해 왔습니다. 지난 1학기 ‘한국사 특강’ 수강 학생 중에 한국사 점수가 42점에서 97점으로 향상되고 나서 2학기에서는 대부분 과목에서 큰 성취를 만들어 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14명의 학생이 ‘세계사 특강’을 오전 8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140분), 12일간 지각없이 참여하였습니다. 수업내용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적어가며 경청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고 선물입니다.

마음을 주면 소통이 되고 교육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미래의 삶에 대한 가장 많은 것이 구체화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절실하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담임이 확실한 자기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적지 않은 제자들은 그때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정년을 1년 앞둔 상황, 앞으로 함께 갈, 정성으로 챙겨 온 제자들이 1,500명이 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스스로에게 다짐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해 볼 수 있겠는가, 지금 주어진 이 기회에 감사하고 기왕 하는 거 마음에 들게 잘하자!” 힘이 들 때마다 이 말과 장학회를 이끌어가는 제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무한 책임이 부담으로 다가서는 담임이지만 학급 학생들과 함께한 공간 안에서 소신과 열정으로 마음껏 교육활동에 임했던 시간의 기억이 있기에 교사로서 더없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②

신동필 명예기자는 서울 한영고등학교에서 31년째 매년 담임을 맡아 왔다. 담임으로 만난 제자들과 장학회를 만들어 43명의 제자를 지원했으며, 그동안의 교육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 대한민국 스승상(대상)을 수상했다.

명예기자 리포트 ②

도심 속 스마트팜 ‘팜올치’에서 첨단농업·사회공헌 배운다

글·사진 | 안현욱 명예기자



스마트팜은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에 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스마트팜이 부산의 도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더욱이 이 장소는 단순히 스마트팜 운영을 넘어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 및 행동·정서상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청소년)를 위한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신(新)산업의 체험처도 제공하고 있다.

바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가 운영하는 ‘팜올치’에 대한 이야기이다. ‘매일매일즐거워’는 2021년 1월 철도 최초의 스마트팜인 ‘레일팜’(후에 ‘팜올치’로 변경)을 거제해맞이 역사에 개소하여 앞서 말한 느린학습자 청년 고용과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레일팜’을 ‘팜올치’로 부르고 있는데, ‘팜올치’는 ‘팜’(농장)과 ‘올치’를 합한 말로 느린학습자의 도전(Always Challenge)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철도 최초 스마트팜, 느린학습자 고용·교육·생산

먼저, 생소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알아보자. 최근 스마트팜이 화두인 이유는 스마트팜이 IT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미래의 식량과 환경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토양 수분과 영양분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작물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적절한 양의 영양분과 물만을 공급하여 수확량은 늘리고 작물의 품질은 개선할 수 있다. 스마트팜의 한 분야인 수직농장은 건물 내에 농장을 짓는 실내농업 기법으로서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매일매일즐거워’는 이러한 스마트팜을 한 분야로 ‘올치(allways challenge)’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느린 학습자 청년·장애인에게 직무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별적인 진로체험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도시철도라는 도심 속 공간 한편에 마련된 수직농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스마트팜과 연계한 탄소중립·생태환경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스마트팜에 직접 작물을 수확하고 수확한 작물로 요리를 하는 등 다채로운 체험에 참여도 할 수 있다. 해당 사회적기업은 역사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통해 신선한 농작물을 키워내고 도심 교통망을 통해 매일매일 먹거리를 제공하는 수입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느린학습자를 교육하고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고용·생산의 순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시민들에게 체험처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느린학습자들과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술을 통



해 농작물을 키워 그 생산물을 느린학습자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통해 배달하는 사업 모델이다. ‘매일매일즐거워’의 올치 아카데미에선 참여자들에게 스마트팜 시설과 매장을 견학하고 농장을 체험하며 수확한 재료를 바탕으로 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도심 속 스마트팜 진로체험을 하고 싶다면?

현재 해당 체험처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진로체험 지원 플랫폼 ‘꿈길’(https://www.ggoomgil.go.kr/front/index.do) 또는 해당 체험처에 유선(051-715-3350)으로 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부산 연제구청과 학생들에게 체험을 제공하는 스마트팜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있어 다양한 경로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산업에 대해 접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메인 교육장에 수용가능 인원은 최대 30명이며, 체험 인원이 많은 경우 교육장을 추가하여 최대 60명까지 신청을 받아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는 부산, 경남지역의 교사 및 교육관계자들은 문의 후 개별 판단에 따라 신청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처럼 ‘매일매일즐거워’의 모델은 교육과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의 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점점 개별화 되어가는 도시 속에서도 상호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좋은 예시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속되면, 도시 생활 속에서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인식개선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과 농업의 혁신이 조금씩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해당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편견을 줄여 상생할 수 있는 새 시대의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데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매일매일즐거워’의 ‘팜올치’가 지역사회의 사회통합과 미래교육을 위한 도전의 중요한 사례로 남아 느린학습자를 비롯한 우리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길 응원해 본다. ❷

신당중,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폐교의 재탄생

글·사진 | 박우은 명예기자



2024년 대구 신당중학교(교장 신만철)는 지역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신당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정든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 폐교되는 학교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어 일명 ‘우리학교 활용 방안 제안 프로젝트’ 수업을 지난해 진행하였다.



폐교되는 우리학교, 어떻게 활용할까?

소중한 추억이 담긴 학교가 없어져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교사들은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해 보기로 하였다. 신당중학교는 대구시교육청의 프로젝트수업(일명 PBL) 실천학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이미 프로젝트 수업을 실천해오고 있다. 신당중학교는 주변이 공단지역으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50%가 넘고 기초 문해력이 낮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교사들은 과목별로 융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학교 건물이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안하였다. 학생들도 아쉬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드러내면서 적극 참여를 희망했으며,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 무게감에 깊은숨을 내쉬기도 했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 하는 단계가 성과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수업은 먼저 마인드맵 정리하기, 마인드맵 활용하여 세부 계획 수정하기, 자료 찾고 정리하기, 제안 발표회 대본 작성하기, 제안 발표회에서 모둠 제안 발표하기로 1단계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제안 발표회에서 사용한 대본을 활용하여 한 편의 제안 글을 작성하고 이 글 중 학교의 대표글을

선정하여 3곳의 공공기관 게시판에 탑재하는 것으로 2단계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자료 수집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학생들은 제안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 조사와 스티커 판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면서 인근 아파트 및 동네 주민, 주위 대학가인 계명대학교 학생들을 선정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하여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였다.

“가족&다문화지원센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어 발음이 어눌한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은 모둠별로 자신의 제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폐교를 활용한 미술전시관, 지역작가들의 작업공간이 있는 예술체육센터, 진로체험관 및 과학실습관, 층별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호스텔, 도서관 및 스터디카페 등을 제안했다. 여러 내용 중 1위로 선정된 제안은 가족 및 다문화지원센터였다.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 한국어 학습이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을 마련하여 일반 가정들도 함께 이용하자는 것이다. 지역 특성상 다문화 학생들이 많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제안하였는데 그 제안이 큰 호응을 받아 1위로 선정되었다.

제안 발표회에서 1등을 한 제안을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 탑재하였다. 수업 시간에 전자칠판 화면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자유게시판 등록 버튼을 누르면서 제안서가 탑재될 때 모두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프로젝트 과정 중에 학생들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해를 못하는 등 우여곡절의 과정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과정을 다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탑재되는 것을 보고 감격해했고 대구시민으로서 정책 제안을 했다는 것에 매우 뿌듯해했다.

프로젝트 수업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 키우는 학생들

이윤솔 학생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기, 방대한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를 찾고 사용해야 할지 등 자료를 찾고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다른 용도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을 냈다.”라며 “사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좋았다.”라고 말했다. 윤우영 학생은 “우리학교가 신당중학교라는 이름으로는 없어지지만, 직접 구상하고 계획하여 우리 학교 건물을 재탄생시키는 기회에 참여하여 너무 좋았다.”라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이 많은 것보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것을 알았고, 리더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을 체감했다.”라고 말했다.

김효선 지도교사는 “학생들을 믿고 기다리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지판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이 미래의 자기 삶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주제를 찾게 해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도 학생들이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2024년 주변의 동료 교사들과 융합하여 프로젝트 수업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려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프로젝트 수업의 절반은 이미 성공일 것이다. ②

함께학교 발언대

2023년 12월 13일에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교사크리에이터협회에서 장관님을 초대합니다.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어려웠던 지난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수업을 집단지성으로 함께 준비하고 연구하고 극복하고자 탄생된 협회입니다. 수업 영상 촬영 방법과 제작 방법 등을 연구하고, 수업보조자료(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던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자발적 회비를 모아 '교사크리에이터협회'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유·초·중·고 45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년에 교육계에서 화두가 될 키워드를 선정하였는데 <미래교육, 늘봄, 디지털교과서(디지털 대전환), 생성형AI, 2022 개정 교육과정, 학령인구, 작은학교, 업무경감, 기본학력(학년 교육책임제), 의대입시반, 고교학점제> 등입니다. 교육부 장관님과 따뜻한, 혹은 시원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미래 교육과 위 교육 키워드들에 대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4년 1월 11일, “드디어 차담회가 열렸습니다”

교원A A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합니다. A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 활용, 발전 등의 단계를 가지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원B 현장에 교육 크리에이터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고 그러한 선생님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교원C 단시간에 대규모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강사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충분한 강사를 수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자칫 연수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티쳐프러너(teacherpreneur)와 교사크리에이터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칠 뿐 아니라 교실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연수를 준비하겠습니다. 연수가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연수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로 러닝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024 늘봄학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용대상

지금까지

방과후 참여율
50.3%

돌봄 참여율
11.5%

'23년 기준
(초1) 방과후 70.8% 돌봄 34.5%
(초2) 방과후 66.1% 돌봄 25.9%

늘봄학교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 없음

'24년 초1학년 100%
'25년 초1~2학년 100%
'26년 모든 초등학생 100%

이용시간

지금까지

오후 1~5시까지
돌봄은 수요일에 따라
오후 7시까지

늘봄학교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최장 오후 8시

[예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 ~ 13:00	정규수업 →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 휴식				
13:10 ~ 13:50	놀이음악	정규수업	창의·수학	정규수업	독서토론
13:50 ~ 14:00	일과 휴식				
14:00 ~ 14:40	놀이체육	창의과학	만성·독서	마음일기	창의미술
14:40 ~ 14:50	일과 휴식				
14:50 ~ 15:30	늘봄과정 (토요그룹)	놀이한글	늘봄과정 (토요그룹)	놀이체육	늘봄과정 (토요그룹)

※ 3월(역응기)은 오후 14:40까지 운영(화,목 오후 정규수업 없음)

운영공간

지금까지

학교 내 돌봄교실(돌봄),
일반학급 등(방과후)

늘봄학교

학교 안 다양한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비용

지금까지

프로그램 비용
학생·학부모 부담
단, 저소득층 등은 무료수강권 제공

늘봄학교

프로그램 비용 무료
연간 매일 2시간 이내(2개 프로그램)
(24년) 초1 (25년~) 초1~2

프로그램

지금까지

학교 인근의
고착화된 공급처 위주

늘봄학교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우수공급처 확대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 플랫폼
「늘봄허브」 구축·운영(25년~)

운영방식

지금까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늘봄학교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해소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 구축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한 점과 다양한 의견은 함께학교에 남겨주세요.

www.togetherschool.go.kr

